

◀지방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실태 비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07.2.5 ~2.12 대만·태국)

오 산 시 의 회

◀지방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실태 비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07.2.5 ~2.12 대만·태국]



오 산 시 의 회

I. 연 수 개 요

■ 연수목적

- 해외연수를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외국 지방 정부의 도시·환경·복지분야 등의 시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운영실태와
- 사회·문화·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폭넓은 안목과 지식을 함양하여 향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의회운영 활동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 연수기간

- 2007. 2. 5(월) ~ 2. 12(월) (7박8일)

■ 연수국가

- 대만, 태국

■ 연수단 구성현황 : 11명

- 의원 6, 수행공무원 4, 취재기자 1

의 장	조 문 환	의회사무과장	권 병 춘
부의장	이 기 흥	전 문 위 원	김 순 본
의 원	김 미 정	직 원	오 강 수
의 원	윤 한 섭	직 원	오 영 애
의 원	김 명 철	취 재 기 자	양 용 기
의 원	장 복 실		

■ 연수세부일정표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간	일 정	식 사
2/5 (월)	오 산	전용차량	13:00	오산 집결 및 출발	석: 현지식
	인 천 대 만	TG 635	15:00 17:30 19:10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수속 인천국제공항 출발 타이페이 도착 (석식후 호텔투숙 및 휴식)	
			대 만	GRAND FORWARD HOTEL CLASS	
2/6 (화)	대 만	전용버스		조식 후 호텔출발 ▶ 공식일정 ■ 신점시청 방문 및 시장과의 면담 토론 ■ 신점시의회 방문 및 의원과의 토론 중식 후 ▶ 공식일정 ■ 자치시설 견학(상하수원 관리국 방문) ■ 환경시설 (쓰레기처리장) 견학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대 만	GRAND FORWARD HOTEL CLASS
2/7 (수)	대 만	전용버스		조식 후 호텔출발 ▶ 공식일정 ■ 사회복지시설(요양원) 방문 중식 후 문화시설 시찰 ■ 국립 고궁박물관, 장개석 사립관저, 충동부 광장, 공자사당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바베큐
				대 만	GRAND FORWARD HOTEL CLASS
2/8 (목)	대 만	전용버스	09:00	조식후 호텔출발 타이페이 출발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북한식
	방 콕 (라 용)	전용버스	11:55	방콕 도착 중식후 라용시로 이동 석식후 호텔투숙 및 휴식	
			파타야	BELLA VILLA CAVANA HOTEL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간	일 정		식 사
2/9 (금)	라 용	전용버스		조식 후 호텔출발 ▶공식일정 ■ 라용 인근 관광자원 운영실태 브리핑 및 답사 ■ 파타야시청 방문 및 고위공무원(관계자)과 만남, 토론 중식 후 산업시찰 ▶공식일정 ■ 한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체 방문 및 CEO와의 미팅 (SHI-ASIA COMPANY LIMITED)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수 끼
				파타야	BELLA VILLA CAVANA HOTEL	
2/10 (토)	파타야	전용버스		조식 후 호텔출발 ▶공식일정 ■ 사회복지시설 방문(시립양노원, 재활병원 : 재활프로그램 설명회) 중식 후 문화시찰 ■ 중국사원(왓 까오 찌짠) ■ 태국의 민속촌(농녹빌리지)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한정식 석: 씨푸드
				파타야	BELLA VILLA CAVANA HOTEL	
2/11 (일)	라 용 방 콕	전용버스		조식 후 호텔출발 방콕으로 이동 문화시찰 ■ 에메랄드 사원, 새벽사원, 왓포사원 및 수상가옥 견학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조: 호텔식 중: 한정식 석: 로얄 드래곤
호 텔		기내박				
2/12 (월)	방 콕 인 천 오 산	TG 638 버 스	01:55 09:05 10:30	방콕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오산도착 및 해산		조: 기내식

Ⅱ. 방문국가현황

■ 대 만 (Taiwan)

① 일반현황

1. 개 관

가. 정치·외교

- 통상 명칭 : 대만
 - 대만이 사용하는 공식 국호는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 정치 체제
 - 국체 및 정체 : 입헌민주공화제
 - 국가 원수 : 총통(President)
 - 권력 분립 : 5권 분립(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
- 헌 법 : 1947.1.1 반포 / 삼민주의(민족, 민권, 민생)가 핵심사상
- 국경일 : 10.10(쌍십절)
- 수 도 : 대북(Taipei)
- 정 당 : 총 121개 정당(2006. 11월 현재) / 집권당 : 민진당(DPP)
- 국제 관계
 - 수교 국가: 총 24개국(2006. 11월 현재)
 - 국제기구 가입 : 총 2,201개 기구(비정부기구 포함)

나. 경제·통상(2005년말 기준)

- 국민 총생산(GNP) : US\$ 3,550억
 - 국내총생산(GDP) : US\$ 3,459억
 - 1인당 GDP : US\$ 15,271
- 경제성장률 : 4.03%
- 산업구조 : 농업(1.7%), 공업(25%), 서비스업(73.3%)
- 국민 생활
 - 평균 수명 : 76.5세

- 주택 보급률 : 87.3%
- 상수도 보급률 : 91.6%
- 물 가('06. 10현재)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63% , - 도매물가 상승률 : 5.54%
 - 수입물가 상승률 : 9.11%, - 수출물가 상승률 : 2.58%
- 산업생산 증가율('06. 10현재)
 - 공업생산 증가율 : 6.0%
 - 제조업생산 증가율 : 6.1%(중공업 : 7.9%, 경공업 : △11.3%)
 - 건축허가면적 증가율 : △13.5%
- 민간소비 증가율 : 1.5%
- 투 자
 - 고정투자 증가율 : 0.2%
 - 민간 고정투자 증가율 : 1.3%
 -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허가 증가율 : 291.0%
 - 자본설비 수입증가율 : △4.9%
- 재 정
 - GNP 대비 중앙정부 세출비율 : 14.6%, GNP 대비 세입비율 : 12.7%
- 금 융
 - 화폐 단위 : 원(NT\$; 신대폐)
 - 외환보유고 : 약 US\$ 2,618억('06. 10월 현재)
 - 평균 이자율 : 2.625%
 - 미화 \$1당 환율 : 약 32.3NT\$('06. 12월 현재)
- 노동('06. 10월 현재)
 - 총 노동인구 : 1,018만명
 - 노동 참여율 : 58.1%
 - 실업률 : 3.9%
 - 실업자수 : 41.3만명
- 무 역(2005년말 기준)
 - 총 수입액: US\$ 1,826억(2006. 1~11월 1,860억)
 - 총 수출액: US\$ 1,984억(2006. 1~11월 2,044억)

다. 지리·기후

- 위 치
 - 북위 21°53'50" ~ 25°18'20", - 동경 120°01'00" ~ 121°59'15"
- 면적 : 36,000km²
 - 최장 길이 : 394km, 최대 폭 : 144km
 - 대만성을 포함 팽호, 금문, 마조 등의 도서로 구성
- 지형 :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구성(경작가능 면적 비율 : 24%)
- 기후 : 아열대성 해양 기후
 - 길고 무더운 여름과 짧고 습한 겨울이 특징
 - 7~8월중 태풍내습(1년 평균 7~8회)
- 월별 평균 기온(2006 대북 지역)

1월	16.1℃	7월	29.6℃
2월	17.8℃	8월	30.1℃
3월	21.1℃	9월	27.1℃
4월	23.8℃	10월	25.1℃
5월	26.6℃	11월	20.8℃
6월	28.6℃	12월	18.9℃

- 연평균 강수량 : 2,515mm / 연 평균 습도 : 77%
- 지진 다발 - 대만 전역에 연 평균 70~80회 크고 작은 지진발생

라. 사회·문화

- 인구 : 22,770천명(2005년말 현재)
 - 평균수명 : 남 73.7세, 여 79.8세 (2005년말 현재)
 - 출생률 : 8.98% (2006년 9월 현재) · 사망률 : 5.526% (2006년 9월 현재)
- 공용어 : Mandarin(북경 관어)
- 치안(2005년 말 현재)
 - 형사사건 전년대비 증가율 : 6.3%, 폭력범죄 전년대비 증가율 : 12.6%
- 사회복지(2005년 말 현재)
 - 사회보험 가입자수 : 2,231만명
 - 사회복지 지출총액 : 3,552억원

- 저소득 노인부조 : 수익자수: 148천명, 수익금액: 89.29억원
- 노년 농민 부조 : 수익자수 : 69.7만명, 수익금액 : 332억원
- 심신 장애인 부조 : 수익인수 : 93.8만명, 수익금액 : 133.4억원
- 교육
 - 의무교육 : 9년(일부 지역은 12년)
 - 학제 :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대는 5년)
 - 대학 총수: 145개 대학(2005년말 현재)
 - 학부생 : 938,648명, 석사과정 : 149,493명, 박사과정 : 27,531명
 - 문맹률 : 2.67%(15세 이상, 2005년말 현재)
 - 정부교육예산 : 4,457억원
 - 고등교육인구 : 129.6만명
 - 초등학교 1학급당 평균 학생수 : 29.2명
- 언론·출판(2006년 9월 현재)
 - 도서관 : 517개소, 신문: 2,439개지, 잡지 : 4,863개지, 언론사 : 1,198개사, 출판사 : 9,064개사, 미디어 관련 회사 : 6,729개사, 라디오 방송국 : 178개국

2. 역 사

가. 네덜란드 식민시기 이전(~ 1624)

- 선사시대에는 말레이-인도네시아 계통의 종족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
 - 대만내의 약 500여개소의 선사유적지 출토물들로부터 추정
- 이후 오랜 세월을 두고 중국 본토에서 건너 온 사람들이 대만에 정착
- 1590년 일단의 포르투갈 선단이 대만에 도착, 대만 북부지역에 잠시 거주
 - 대만을 Ilha Formosa(아름다운 섬)라고 부르고 동 명칭으로 서양에 소개

나. 네덜란드 식민시기(1624 ~ 1662)

- 1624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대만 남부에 Zeelandia 요새와 현재의 대남 지역에 ‘안평’이라는 소규모 거주지 건설
- 1626년 스페인이 현재의基隆에 요새를 건설하고, San Salvador로 호칭
 - 1629년에는 현재의 담수지역을 Castillo라고 부르고 동 지역에 식민정부 수립

준비

- 1642년 필리핀 내란으로 스페인이 대만 북부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사이에 네덜란드가 스페인 점령 북부지역까지 차지, Zeelandia 요새를 식민수도로 결정
- 1642년부터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를 통해 대만을 직접 관할
 - 총통 임명, 중국인 및 토착인에 대한 과세 등
-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이후 대만을 이지역의 교역과 해운의 중심지로 육성
 - 중국으로부터 비단, 도자기 및 약재를 수입, 일본 및 네덜란드로 재수출
- 1644년 만주족의 명나라 침입으로 중국 대륙이 혼란에 휩싸이자, 중국 복건성 남부, 광둥성 동부 지역의 많은 중국인들이 대륙으로부터 대만으로 이주
 - 네덜란드의 중국인들에 대한 농지 소유 불허 및 중과세 정책에 항거한 중국인들이 1652년 곽회일을 중심으로 봉기, 네덜란드의 식민통치 크게 약화
 - 1662년 만주족의 대륙지배에 항거하면서 명나라의 재건을 도모하던 정성공이 네덜란드 잔류세력을 축출하고 안평을 새로운 도읍으로 결정

다. 반청 항쟁기(1662 ~ 1683)

- 정성공과 그의 아들 정경은 유교 교육을 실시하고 중국식 법제를 시행하는 등 대만에 대해 중국식 관습과 문화를 이식
- 한편, 군대를 훈련시키고 대륙과 마주보는 해안에 성벽을 건설하는 등 청나라에 대항 : 이 기간 중에도 청나라의 압제를 피하여 대만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그러나, 1682년 정경이 사망하고 12세의 어린 아들이 그의 뒤를 승계하자 청은 1683년 군대를 파견, 대만을 점령

라. 청조 통치시기(1683 ~ 1895)

- 청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대만에서는 쌀, 대나무 및 장뇌 농업이 집중적으로 발전
 - 특히, 장뇌는 환금성이 높았기 때문에 대륙으로부터 많은 본토인들이 대만으로 이주, 장뇌 채취
 - 장뇌 채취를 위해서는 대량의 벌목이 불가피했던 까닭에 주로 산림지역에 거주하던 대만 원주민들과 이들 산림을 훼손하려는 본토인들 사이에 충돌 빈번
 - 장뇌 이외에도 쌀, 설탕 및 차의 생산이 풍성하여 중국 대륙을 비롯하여 국제 시장에 수출

- 대만의 농업이 계속 발전하자 19세기에 들어서는 영국, 미국, 프러시아 및 일본 등 당시 제국주의 세력의 대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 이의 결과로 청나라는 1858년 천진조약 체결후 안핑 및 기륭 등 대만의 4개 항구를 외국에 개방
 - 이후에도 제국주의 열강은 대만의 주요 지역을 공략, 거점화하려는 노력을 지속
- 제국주의 열강의 대만에 대한 침탈이 계속되자 청나라는 심보정 및 정일창 등을 파견, 대만의 계속적 개발과 방어를 도모한데 이어, 1822년 대만을 청나라의 22번째 성으로 편입시키고 그 다음해인 1823년 류명전을 최초의 성장으로 파견
 - 류명전은 대만을 3개 부, 1개 주 및 3개 청으로 나누는 등 대만의 지방행정 조직을 체계화하고, 교통·우편·통신망을 정비하는 등 대만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 경주
- 그러나, 1895년 청나라와 일본간의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는 대만을 일본에 할양
 - 류영복 등 대만 주재 청나라 관리들과 대만의 토착세력들은 일본에 대한 대만 할양에 반대하며 동년 5.25 대만의 독립과 대만민주국의 수립을 선포
 - 동년 10.21 일본은 대만의 독립움직임을 무력으로 진압

마. 일본 식민 시기(1895 ~ 1945)

- 식민통치 50년의 기간동안 일본은 대만을 일본 본토에 대한 식량 공급기지 및 일본 공산품의 소비기지화 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 식민초기인 1895년부터 1918년까지 일본은 대만에 대하여 잔존 저항세력을 제압하고 일본식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 경주
 - 철저한 경찰통제, 전 지역에 걸친 토지조사, 도량형 표준화 등 실시
- 식민중기인 1918년부터 1937년까지는 일본의 대만에 대한 통치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일본어 교육의 의무화 및 문화 동화정책 실시
- 식민후기인 1937년부터 1945년까지는 대만인들의 소위 황국 신민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
 - 일본식 이름의 사용 의무화 및 신사참배 강요 등

바. 1945년 이후

□ 국민당의 대만 이주기

- 1945.8 일본이 대만을 연합국에 양도한 후 국민당은 국부군을 대만에 파견, 인수작업 실시
 - 대만 거주민들은 초기에는 이들을 환영하였으나, 부패와 고압적인 태도로 점차 불만 증가
-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1947.2.28, 소위 “2.28 사건” 발생
 - 탈세 담배를 팔던 한 노파가 담배를 강제 몰수한 연주공매국 직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이를 구경하던 행인 한명이 총상을 입었으나 근처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자 이에 격분한 시민들이 공매국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동 시위가 대만 전역으로 확산된 사건
 - 동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만의 여론 주도층들이 ‘2.28사건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 국부군은 21사단을 대만에 파견, 이를 무력으로 진압, 처리위원회 소속 대만 여론 주도층 대부분을 처형함으로써 본토인들과 대만인들 사이의 갈등 증폭
- 1949.5 국민당, 공산군의 공격이 거세지자 대만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30만명의 국부군을 대만에 진주
 - 동년 10월 광둥 등지에서의 대규모 접전에서 공산군에게 패배한 이후 12.7 대만으로 “중화민국” 정부 이전
- 1950년 한국전쟁 발발시 트루만 미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 제7함대가 대만 방어 임무 수행
 - 1954.3.3 미-대만간 상호원조조약 체결
 - 1958.8.23 중국군이金門도지역에 대규모 포격을 실시한 소위 8.23 전투 발발

□ 대만 정착기

- 대만 이주 장개석 정부는 토지개혁 및 연속적인 4개년계획 등 대만경제 부흥 정책 실시
 - 제한적인 국내수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도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실시
 - 1962년에서 1985년간 연평균 9.3%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
- 1970년대에도 대만의 고도경제성장은 계속 되었으나 외교적으로는 고립화 추세 시작 : 유엔으로부터 축출, 미국 및 일본과의 단교 등

- 70년대 이후에는 국내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 발생
 - 1975.4 장개석 사망, 후임 총통에 엄가금 취임
 - 1978.3 장경국 총통 취임
 - 1988.1 계엄령 해제, 장경국 사망 및 이등휘 총통 취임

□ 이등휘 총통시기

- 대만 출신으로서 최초로 총통에 취임한 이등휘 총통은 기존 장경국 총통시기의 경제정책 및 민주화 정책 지속
 - 1991. 5 동원감란시기림시조관을 폐지함으로써 국민대회, 입법원, 총통 및 부총통 직선 등 정치개혁 가속화
 - ※ 동원감란시기림시조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에 정부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제정된 임시조례
- 대만의 주요 민주화 진전
 - 1989년 복수정당 허용
 - 1991년 최초의 국민대회 직선
 - 1992년 최초의 입법원 직선
 - 1994년 최초의 대만성장 및 대북, 고웅시장 직선
 - 1996년 최초의 총통 직선 등

라. 진수편 총통시기

- 2000.5.20 대만 최초로 야당 민주진보당 주석이 총통 취임
 - 중국의 무력 동원 않는다는 조건하에 ‘사불일몰유’ 양안정책 발표(집권1기)
 - 사불일몰유 : · 독립선언을 않는다
 - 국호를 변경하지 않는다
 - 양국론 입헌을 추진하지 않는다
 - 국민투표를 통한 현 상황 변화를 추진하지 않는다
 - 국가통일 강령 및 국가통일회의 폐지 문제는 없다
 - 2002.7.18 ‘도전 2008 국가발전중점계획’을 수립, 대만을 아태기업 운영 본부로 육성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금융, 교육, 사법, 정치 등 4개 분

야 개혁 추진

- 2001. 1월부터 금문, 마조와 중국 복건성 간의 소삼통을 일방적으로 실시, 계급용인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였으나, 2002.8 「일변일국」 발표 등으로 양안관계는 경색
- 2003.8 진총통은 「하나의 중국」 전제하에서는 양안직항 등 삼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2004.3.20 제 11대 총통선거에서 진총통은 연임에 성공
 - 5.20 총통취임사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2006헌법개정 추진 의사 발표(집권 2기)
- 상기 총통선거일과 동일 실시된 주민투표안(양안간 대등 담판 의제 및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미사일 방위능력 제고)은 부결되었으나, 진총통은 대만 방위력 증강을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 잠수함, 대잠기 등 대미 무기구입을 추진중
- '04.12.11 실시된 제6대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을 포함한 여당권은 입법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05.12 실시된 현.시장 선거에서 국민당에게 패배(민진당 6지역, 국민당 14지역 승리)
- 진총통은 '06 신년사에서 양안 경제정책으로 「유효개방, 적극관리」를 발표하고 '06. 2 국가통일위원회와 국가통일강령 「종지」를 선언하여 양안관계 긴장
- 진총통 일가측의 부정혐의로 국민당, 친민당은 총통파면안을 3차에 걸쳐 추진 모두 실패(2006.6.27, 10.13, 11.24)

3. 정 부

가. 정치체제

- 삼민주의(민족, 민권, 민생)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공화국
- 총통 아래 행정·립법·사법·고시·감찰의 5권 분립제
 - 입법기능은 당초 국민대회와 입법원으로 분리되었으나, '00.4.8 제3회 국민대회 제5차 회의시 총통 및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 의결권을 제외한 전권을 입

법원으로 이전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력 분립

나. 헌 법

□ 구성 및 연혁

- 1946.12.25 채택, 1947.1.1 발효
- 전문, 14장 186조(2005.6 11개 조항 추가분 포함)

□ 국민의 권리 및 의무

◦ 권 리

- 노동권,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투표권, 파면권, 발안권, 선거권, 국가보상청구권
- 천부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침해받지 않으며, 여하한 기본권의 침해서에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공공복리, 타인의 기본권 침해 등 헌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받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 가능

◦ 의 무

-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규정
- 교육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

□ 정치·경제·사회 정책

- 헌법 13장에서 대만의 기본정책을 명시
 - 국방, 외교, 경제, 사회보장, 교육, 문화, 소수민족 정책 등
- 1997 수정헌법 9조는 현대 사회에 새로이 대두된 사안들을 규정
 - 과학기술, 공업발전, 환경보호, 국민의료보험, 성차별 문제 등

다. 중앙 정부

□ 총 통

1) 개 요

- 헌법상 대만의 최고 선출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최고권력 행사기관

- '96년에 역사상 최초의 총통 직접 선거를 했으며, 현, 진수편 총통은 '00. 3 총통선거시 야당후보로 최초 당선후 '04. 3 재선
 - 종래의 헌법에서는 총통·부총통을 국민대회에서 선출했으며, '동원감란 시기림시조관'에 의거 총통직의 무기한 연임을 허용함에 따라 장개석·장경국 총통이 '종신' 연임
-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가능

2) 권 한

-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3군을 지휘 통솔
- 5원간의 이권을 조정
- 감찰원 심계장 임명(입법원 동의)
- 사법원 원장, 부원장 및 대법관, 고시원 원장 및 부원장, 감찰원 원장, 부원장 및 감찰위원 등 임명
- 행정원장 등 고위공무원 임명
- 국가안보를 위한 비상명령 발령
- 입법원 해산권

3) 총통부

- 3국 3실로 구성
 - 의전·홍보·법령공포·경호업무 등 총통을 보좌
- 산하기관 : 총통부 직속으로 4개의 기관 설치
 - 중앙연구원 : 대만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사실상 독립적인 지위를 향유하며, 연구원은 원사라고 지칭되는 종신직
 - 국사관 : 문서보존 및 현대중국과 대만 역사 연구
 - 국가안전회의 : 총통이 의장을 겸임하는 총통의 안보자문기구로서 산하에 국가안전국 설치
 - 국가통일위원회 : 32명의 각계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된 통일 정책에 대한 총통 자문기구('90년 설립, 2006. 2 종지 선언으로 사실상 기능정지)

□ 행정원

1) 개 요

-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원장·부원장 아래에 8부, 1처, 2국, 2회, 3서와 20개 위원회와 고궁박물관, 중앙은행으로 구성
- 행정원장은 총통이 직접 임명(현 원장 : 소정창)

2) 입법원과의 관계

- 입법원에 예산안 제출
- 입법원 회기중 입법원의 행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에 응해 출석
- 입법원은 행정원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원은 총통의 동의를 얻어 입법원이 결의를 재고하도록 요청 가능
 - 이때 출석 입법원 의원 2/3가 본래 결의를 지지하면 행정원장은 그 취지에 따라서 집행
 - 취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임해야 할 의무

□ 입법원

1) 개 요

-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수정안 발의, 법률, 예산, 계엄, 사면, 선전포고, 조약체결 및 기타 국가 중요 사항 의결
- 매년 2회의 정기 회기를 가지며, 매회 회기는 4개월(연장 가능)
- 입법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2007년부터 임기 4년)
- 입법원 정원 : 총 225명(지역구 168명, 전국구 41명, 원주민 8명, 화교 8명)
 - 90년대 민주개혁 이전에는 대륙에서 기선출한 500여명이 종신대표로 연임하였으며 총 입법원 정원이 700명을 상회
- 의원들은 회기내 면책특권 보유

2) 입법원의 조직

- 원장·부원장 각 1인은 입법위원 중에서 선출
 - 원장 :王金平 전 국민당 부주석
- 12개의 상설위원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
 - 각 상설 위원회는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1개의 상설위원회에만 소속

□ 고시원

1) 개 요

- 공무원 선발, 고용, 승진, 퇴직금 업무 등 관장
- 직업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 관련 업무 일체를 독립적으로 처리

2) 조 직

- 입법원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하는 6년 임기의 원장, 부원장 및 17명의 위원으로 구성(원장 : 요가문)
- 산하에 비서처를 비롯 2부, 2위원회 설치
 - 고선부 : 공무원 시험 전담
 - 전서부 : 공무원의 등록, 성적사정, 임면 등의 업무관장
 - 공무원보장기배훈위원회 : 공무원 신분 보장 및 교육 담당
 - 공무원인원퇴휴무출기금관리위원회 : 공무원 퇴직기금 관리 감독
 - 인사행정국 : 행정원 산하에 있는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고시원이 업무 감독
- 고시위원회 : 고시원내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
 - 원장, 부원장, 위원 20명, 2 부장, 2 위원회 주임 및 비서장, 부비서장으로 구성
- 매 공무원 시험시 원장, 부원장 또는 고시원 위원을 장으로 시험감독위원회 구성

3) 공무원 시험

- 크게 공무원인원고시와 전문직업 및 기술인원고시로 분류
 - 공무원인원고시 : 고등고시(1-3등급으로 세분류), 보통고시 및 특종고시(1-5등급으로 세분류), 승등고시(승진시험), 검정고시
 - 전문직업 및 기술인원고시 : 공무원인원 고시와 같이 고등, 보통, 특종으로 분류
- 고선부는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의 자격검정 및 군인의 일반 행정부문으로의 전직도 관장

4) 공무원 제도

- 공무원 총수 : 약 57만명
- 일반직 공무원은 총 14등급으로 분류 : 고급공무원 10-14, 중급 6-9, 하급 1-5
- 정년은 65세까지며 60세 이상 공무원 중 5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자 또는 60세 미만 공무원 중 25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자는 명예퇴직 가능

□ 감찰원

1) 개 요

- 최고 감찰기관으로서 공무원의 탄핵, 징계, 감사업무 담당
- 1기 감찰위원은 '48년 233명이 선출되었으나 대만천도로 개선되지 않고 종신제를 유지하다가 헌법개정으로 2기 감찰위원이 '93.2.1 업무개시(현재 제3기)
 - 헌법개정으로 종래 준입법기구였다가 준사법기구가 되었으며 6년 임기의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을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

2) 조 직

- 원장, 부원장, 심계부 및 7개 위원회로 구성
 - 위원회 : 내정·소수민족, 외무·교민, 국방·정보, 재정·경제, 교육·문화, 교통·조달, 사법·교도
 - 각 위원은 3개의 세부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여타 위원회에는 표결권이 없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 가능
 - 각 위원회는 14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최고 감찰기구로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감찰위원회 설치
- 감찰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직무에 임해야 하며 헌법 제103조에 의거, 겸직 금지

3) 기 능

- 탄핵소추 발의권
 - 업무태만 및 위법을 사유로 중앙·지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 탄핵소추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동 발의안을 제기한 위원이외에 9명이 추

가 동의하도록 규정

- 감찰원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적정기관에서 탄핵결의
 - 일반공무원 : 공무원징계위원회
- 징계요구권
 - 감찰위원은 3인의 추가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사법원 공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심사 요구
- 직무감찰권
 - 행정원의 부적절한 직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원은 적정조치를 취한 후 서면으로 감찰원에 보고
- 진정수리
 - 감찰원은 감찰법에 의거, 국민이 진정한 내용을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그 대상은 공무원, 공공 및 사조직을 망라
- 감사권
 - 감찰원의 심계부는 정부,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공기업에 대한 감사 실시
- 공직자 재산신고
 - '93.8 감찰원 산하에 설립된 공직인원재산신고처에서 총통·부총통, 5원장·부원장, 기타 정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신고 접수

라. 지방 정부

□ 행정구역

- 2직할시, 22현시(17현, 5성할시), 309향진시구(28현할시, 221향, 60진)로 구성
 - 대만 관할 복건성 정부는 2현
- 직할시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며 현할시는 현정부가 관할
 - 직할시 : 인구 150만명 초과 도시(대북, 고웅)
 - 현할시 : 현내에 인구 15만명 초과하며 상공업이 발달한 구역이 현할시로 승격
- 현은 상기 현할시외, 진(현내 도심지역)과 향(미발달 지역)으로 분류
 - 촌은 향 아래, 리는 구·진·현할시 아래 설치
 - 촌·리 아래에는 린을 설치

□ 지방자치 연혁

- '46, 촌·이장, 향·진 주민대표 민선 실시
- '50.4 대만성 각 시·현 지방자치 실시요강 공포
- '50.7 현·시의원, 현·시장, 향·진·현할시장 민선
- '54.4 성의원 민선
- '94.7 성현자치법 제정

□ 선출직 공무원

- '50년부터 현·시장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선으로 선출하였으며 '94년 성현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만성장 및 직할시장도 민선
 - 현재 민선 제3기 직할시장 재임중
 - 단, 성장 및 성의원은 '97.7 헌법 수정에 따라 '99.12 이후 소멸
- ※ 성현자치법 제정 이전에는 행정원장이 추천한 자를 총통이 성장 및 직할 시장으로 임명
-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 중임제
- 복건성 정부에는 성현자치법 비적용
 - 복건성 현장 및 현의원 직접 선거는 각각 '93. 11, '94. 1 최초로 실시

4. 국내 정치

가. 개 관

□ 민주화의 지속적 진전

- '87.7 계엄령 해제 이후, 민주화 추진을 위한 주요 조치 단행
 - '87.7 장경국 총통, 38년('49-'87)간 시행되어온 계엄령 해제 선언
 - '90.5 이등휘 총통, 민주개혁 추진 입장 표명
 - '91.5 공산당과의 내란 상태 종식 선언
 - '91.5 선거제도와 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중점을 둔 수정 헌법 공포 및 '동원감란시기 립시조관' 폐지
 - '92.12 제2기 입법위원 선거
 - 대만 역사상 최초로 민선, 국민·민진당간 양당 정치 기반 확립
- '97.7 총통, 행정원, 입법원 등 권력기관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둔 헌법 수정

□ 민주선거제도 및 의회정치 기반 마련

- '92.12월 최초로 입법원 민주 선거 실시
- '96.3 역사상 최초로 총통 직선 실시
- 2000.3 진수편 현 총통 당선으로 여야 최초 정권 교체
- 2004.3.20 제11대 총통선거에서 진수편총통이 연임

□ 양안관계의 영향

- 대만의 선거는 양안관계 추이에 밀접한 영향을 받아 왔는바, 종래의 선거에서는 중국의 미사일 실험, 강성 발언 등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00.3.18 총통 선거에서도 대만의 TMD 참여문제, '99.7 이등휘 총통의 「량국론」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침.
- 2004.3.20 총통 선거시에는 중국이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채 미국, EU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만 총통선거에 영향을 주려 함.
- 진총통의 대만독립추진 동향 관련, 중국은 민진당 정권을 상대하지 않고 야당을 대화상대로 하면서 민진당 지지기반인 농민층을 회유하여 민진당의 장기집권을 막으려고함.

나. 선거 제도

- 20세 이상의 국민이 직접·보통·비밀·평등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 선출
- 총통 등 중앙 선출직 공무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 절대 득표수에 따라 당선
- 각급 의회(입법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각 지역구에서 일정수의 대표를 선출함. 입법원 선거에는 비례대표 및 재외국민을 위해서도 일부 의석 유보
- 2006.11 기준, 총 121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으나 영향력을 미치는 정당은 민진당(DPP), 국민당(KMT), 친민당(PFP), 대만단결연맹(TSU), 신당(NP) 등 5개 정당

다. 주요 정당

□ 중국국민당(1894. 11 창당)

1) 조직 체계

- 중앙전국대표대회(폐회기간은 중앙위원회-위원 210명)
- 성급대표대회(폐회기간은 성급위원회)
- 현급대표대회(폐회기간은 현급위원회)

- 구급대표대회(폐회기간은 구급위원회)
- 구분부당원대회(폐회기간은 구분부위원회)

2) 중앙당

- 전국대표대회는 2년마다 중앙당부 소재지에서 개최되며, 중앙위원회가 소집
 -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성급 당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대표대회 소집 가능
- 중앙상무위원회(31명) : 국민당내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중요한 국가정책을 광범위하게 토의·결정
- 일상적인 당무는 비서장(현재 천춘백)이 처리

3) 당원수 : 약 110만명(2006.11월말 현재)

4) 최근 동향

- 현재 주석은 마잉구이며, 6명(2003.4 6명으로 증원)의 부주석은 주석이 제청후 전국대표대회에서 승인
- 당주석이 중앙상무위원회 위원중 10~15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당헌 수정

□ 민주진보당

1) 중앙당

- 국민당 조직과 유사
 - 전국대표대회에서 31명의 중앙집행위원회 위원과 11명의 중앙평의위원회 위원 선출
 - 중앙평의위원회에서 11명의 중앙상무위원회 위원 선출
 - 상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
- 당주석은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하나 중앙상무위원회 위원만이 피선출권 보유 : 당주석은 비서장등의 임명을 중앙상무위원회에 제청

2) 연 혁

- '86.5 대만정부는 '공공정책연구회'에 합법적 지위 부여결정
- '86.9 민주진보당 창당
- 2000.5 진수편 총통 취임으로 대만 역사 이래 최초로 야당이 집권
- 2004.5 진수편 총통 재집권

3) 정 책

- 민진당은 기본적으로 ‘대만독립’을 주장하며 이를 당헌에 규정
- 내부적으로 동 정책을 둘러싸고 급진파인 신조류파와 대만연맹, 그리고 비교적 온건 노선을 추구하는 미래도파로 분열
 - 안정 희구 세력의 지지를 확보키 위해서 ‘대만독립’ 문제를 예전처럼 강하게 거론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은 탈당해서 건국당 창당(1996.12)

4) 당 원

- 약 500,000명(2006.11월말 현재)

□ 친민당

- 2000. 3 국민당내 송초유 측근들이 국민당 탈당 및 친민당 창당
 - 2000. 3 총통선거시 송초유는 무소속으로 출마, 2위를 기록
- 2003. 3 국민당과 2004년 총통선거 후보 협력 체제합의 (연-송 단일화), 당 주석인 송초유가 부총통 후보로 출마
- 당원수는 약 10만명

□ 대만단결연맹

- 2001.7 국민당내 이등휘 전총통 측근들로 창당
- 민진당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대만정명(정명)운동 추진 중.
- 당원수는 약 3만명

라. 최근 동향

□ 최근 선거결과

- 2004.12 실시된 제6대 입법위원 선거시 야당이 입법원내 과반수(113석)를 확보함으로써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민진당 89석, 국민당 79석, 친민당 34석, 대련 12석, 신당 1석, 기타 10석)
 - 국민당 마영구 주석의 인기에 영향을 받아 친민당 입법위원의 국민당 합류가 진행되어 국민당 89석, 민진당 84석, 친민당 22석, 태련 12석으로 국민당이 제1당으로 부상(2006. 12 현재)
- 2005.12 실시된 23개 시,현장 선거에서 국민당이 14개 지역에서 승리하여 6개 지역을 확보한 민진당에게 크게 승리(선거 직전에 민진당과 국민당이 각각 9개 지역 시, 현장 보유)

- 2006년말 태북, 고웅시장 선거

□ 최근 정세

- 국민당과 친민당 등 야당은 진수편 총통 일가, 측근의 비리 혐의를 이유로 자진 사임을 요구하면서 입법원에 3차에 걸쳐 파면안을 제출, 모두 부결됨('06.6.27, 10.13, 11.24)
- 마영구 태북 시장의 시장 특별비 개인구좌 수령 및 재산 신고 포함 관련 마 시장은 만약 검찰 기소시 국민당 주석직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여야간 정치공방 심화

□ 향후 전망

- 입법위원 수를 1/2로 축소하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당제가 형성되면서 친민당과 대련등 군소 정당은 존립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
 - 2008년 총통 선거는 대만 본토정권의 지속 집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민진당과 국민당 등 야당이 국내정치에서 치열한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중국 대륙측의 민진당 정권 재집권 방지를 위한 개입 가능성 존재

5. 경 제·통 상

가. 경제 발전과정

□ 경제발전 준비기('49~'52)

1) 경제상황

- 2차대전으로 생산설비의 75%이상 파괴, 인플레이 만연
- 농업이 전체 산업의 주류였으며 소작농의 일반화로 생산력 낙후

2) 주요 경제정책

- 농업생산력 강화
 - 토지개혁 실시 : 삼철오감조('49), 공지방령('51~'52), 경자유기전('53~'54)
 - 농업생산기술 개량, 관개시설 확충, 시비 및 농약 보급 확대
- 화폐개혁('49) 및 외환관리 강화('49~'50) 등을 통해 인플레이 억제
-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및 민간기업의 육성

□ 수입대체 추진기(1950년대)

1) 경제상황

- 주력 수출상품인 농산물의 수출 격감으로 외환 부족과 국제수지 역조 현상 심화
- 광범한 유휴 노동력 발생('50년대 초반 평균 실업률 10% 수준)

2) 주요 경제정책 :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수입대체

- 국내에서 육성중인 경공업 분야에 대한 수입 제한 또는 잠정금지
 - 방직, 합판, 시멘트, 유리, 화학비료, 종이, 자전거
- 완제품의 관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
- 외환통제의 강화 : 외환집중제 및 이중환율제 실시

□ 수출대체 추진기(50년대 후반-60년대)

1) 경제상황

- 경공업에 대한 수입대체는 대만시장의 협소로 '50년대말 한계에 직면

2) 주요 경제정책 :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수출 산업화

- 단일환율제도로의 이행 및 대폭적 평가절하 실시 : 24.8원/\$ → 40원/\$
- 수입제한 완화 및 수출절차 간소화
- 수출입은행 설립 및 수출 자금의 저리 융자
- 관세환급제도 도입, 가공수출구 설치

□ 중화학공업 육성기(1970년대)

1) 경제상황

- 경공업의 수입대체, 수출지향산업의 성공적 추진후 대규모 자본, 고급 기술이 소요되는 중화학 공업에의 투자여력 집중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기할 필요성 대두

2) 주요 경제정책 : 중화학 공업육성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 10대 건설계획 추진('73년 착수)
 - 교통시설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7개)
 - 중화학 공업건설 : 종합제철, 고령조선소, 석유화학 등
- 수출지원 조치의 지속적 추진 및 수입자유화의 단계적 추진
- 중화학 공업화의 점진적 추진 및 종래의 경공업 시설 개별 투자 병행

□ 경제의 자유화·국제화 추진(1980 ~ 1990년대)

1) 경제상황

- 30년간의 성공적 경제발전으로 흑자기조·저축율 제고, 물가안정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였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과도한 무역흑자로 통화팽창, 투기 만연 등 역작용 발생
 - 환경문제, 사회간접자본 확충,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과제 대두

2) 주요 경제정책 : 경제의 자유화, 국제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 금리자유화('85), 수입자유화, 외환자유화('87, '89), 자본시장의 점진적 자유화
- 14항 주요건설계획('84), 국가건설 6개년계획('91-'96) 추진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획기적 확대
- 국가과학기술 발전 10개년계획 수립('86-'95)
- 산업 구조의 조정 및 현대화 추진
- 환경, 문화 수준 향상

나. 경제정책기조(2000년 이후)

□ 개 요

- 진총통 집권이후 2001년에는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Delta 2.2\%$)을 기록하였고, 실업률 및 은행의 부실 채권 증가, 주식시장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들어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임.
-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만내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2008년까지 연 5%이상의 경제정상을 달성을 목표로 한 '6개년 국가발전 계획'을 추진중임.
- 2004년에 경기활성화 및 실업자구제를 위하여 5년 동안 5천억 NT\$(147억미불)를 투자하는 신10대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음.
- 최근 대만정부는 2006.7월 민간합동으로 「대만경제영속발전화」를 개최하고 동회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목표로, 산업발전, 재정금융, 사회복지, 공공건설 분야의 발전계획을 발표추진중임.

□ 최근 경제운용 동향

- 대만경제는 과거 50년만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연평균5%이상 고속성장을 계속했으나, 2000년 진수편정부 출범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 911테러사태

등의 영향으로 2001년에는 경제성장률 $\Delta 2.2\%$ 로 사상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들어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추세로 2004년에는 민간투자의 급등으로 5.7%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5년에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4.03% 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음.

- 대륙투자 누계액이 1,000억 미불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중국 대륙으로의 지속적 투자유출
- 악성대출금(NPL) 비율이 높고(6.8%), 영세 금융기관이 산재(450개 이상)하여 금융구조 개편 추진중
 - 3대 은행 전체 시장점유율이 26% 로서 싱가포르(80%), 홍콩(78%), 캐나다(60%), 미국(50%)에 비해 매우 작음.
-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및 중국대륙으로의 투자유출에 따른 국내투자 부진으로 인해 실업률 증가
- 대만경제는 무역의존도(65%)가 높고 전체 수출품목 중 IT 상품비중(45%)이 높아 세계 IT산업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취약성이 있음.

□ 경제정책 수립·운용관련 주요 조직

- 경제건설위원회 : 경제·금융 조정 및 경제개발계획 수립
- 경제부 : 경제전반 운용
 - ※ 산하기관으로는 공업국, 국제무역국, 중소기업처, 국영사업위원회, 투자업무처 등 설치
- 아·태운영 중심 계획
 - 대만을 21세기 아·태 지역의 제조업, 금융, 해운, 항공, 통신, 매체 등 6개 분야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아태영운중심’계획을 수립
 - 경제건설위원회(CEPD)가 총괄하며 각 전문분야는 경제부, 교통부, 재정부, 중앙은행, 신문국 등이 담당
 - ‘95.3 CEPD내 ‘아태영운협조복무중심’을 설치, 다국적 기업의 대만내 투자 유치를 지원

다. 경제의 특징

□ 수출주도 경제발전

- 대만은 한국과 같이 부존자원상의 제약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출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

□ 중소기업위주 경제구조

- 삼민주의의 균부사상에 의거 특정 재벌을 인정치 않는다는 경제풍토 및 자유로운 회사설립 요건 등에 기인
 - 정부가 중소기업진흥 육성을 위해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다는 것과 자유로운 기업풍토가 중소기업 육성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

□ 외부 변수

- 대만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대치중인 바, 여타 국가에 비해서 외부 변수가 국내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클 상황
 - ‘대만독립’이 주요 이슈가 되는 선거철에는 중국과의 긴장 때문에 일시적인 경기 둔화 발생
 - ’95~’96 대만 해협 미사일 위기시에도 경제가 정국 불안정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가 이후 양안간 대치관계가 소강 국면으로 들어선 후 회복
 - ’97 동남아 금융위기의 여파가 ’98년 들어 본격적으로 대만 경제를 압박(내수시장 침체, 수출 성장세 둔화 등)
 - 2003년 전반기 SARS 만연 등으로 관광,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입음.

□ 자유경쟁 경제체제

- 대만은 경제개발단계부터 착실히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진.
 - 종래 국내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 2002년 WTO 가입후 국내경제 및 국내 무역자유화 가속, 국민소득 및 무역규모 확대

라. 산 업

□ 공 업

1) 개 요

- 중소기업 생산이 대기업의 생산을 상회하는 등 소량·다품종 전문화 생산 위주
- 경제성장 초기에는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토지 임차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를 유인
 - ’87년 이후, 증시과열, 지가상승, 3D업종 기피 현상등에 의해서 공업 부

문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해외 이전투자 증가

- 서비스 부문의 증대로 상대적인 국내 총생산 비중은 감소 추세
- 노동집약적 산업 쇠퇴, 컴퓨터, 반도체 등 자본·기술집약적 산업 성장
- 최근 생산라인의 중국 이전 현상 가속화로 공동화 우려

2) 정보통신

- 매년 평균 10% 정도의 성장률 기록
 - 2005년 16.4%, 730억불 생산
 - 컴퓨터 주변기기 산업은 대만의 최대 수출산업으로서 세계 생산순위 1위
 - 모니터, mother board, scanner 등은 세계 생산의 60% 이상 점유
 - 현재 각 업체의 R&D 투자비용은 매출액의 3% 정도로 매우 낮으나, 생산라인이 점차 중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R&D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음.
 - 대체로,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OEM(주문자 생산방식) 생산을 하고 신규 기술 개발 및 투자는 이미 일본의 경기나 기술개발 추이에 종속

3) 자동차

- 대만의 연간 자동차 수요는 35만-40만대 수준
 - 13개의 업체가 외국 기업들과 합작으로 연간 약 40만대를 생산
- 대만 자동차 산업은 국내시장 규모가 협소한 탓으로 엔진 등 주요 기술 및 자체브랜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본 자동차의 국내 조립 생산 판매를 주로 하는 상황임.
 - 엔진 등 핵심부품 국산화 비율 저조
 - 대만정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시장의 중국 진출 확대를 장려

4) 에너지

- 약 98%가량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며 에너지 생산에서 원유가 54%, 원자력이 11% 각각 차지
- '96년 중국석유의 민영화 추진을 계기로 민간의 정유·판매 등을 허가
 - '87년 부분 민영화 단행, 사영 주유소 허가

- 2001년 석유관리법 시행후, 대만 석유제품 시장이 본격적 자유화
- 2006년 중국석유는 미국 텍사스 중질유 가격 변동과 국내유가를 연계하여 조정하는 ‘관리변동유가제’시행
- 전 기 : 대만전력공사가 담당, 2005년 현재 총 발전량은 227.449억
- 원자력 : 대만전력공사가 담당, 현재 3개의 발전소에 6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제4발전소는 진총통 취임후 대선공약에 따라 건설 중단 하였으나 야당측 요구로 건설재개

□ 서비스 산업

- 경제성장에 따른 다양한 수요 창출로 인해 ‘87년,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공업 분야 종사자 수를 처음으로 초과
- 서비스 산업은 대만 GDP의 73% 이상을 점유
 - 금융, 보험, 부동산(21%), 상업(19.4%), 운송·저장(7%) 등

□ 농수축산업

1) 개 관

- 한때 이농현상이 심각하여 10% 이하의 노동력이 종사하였으나, 최근 몇 년 간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인구 증가로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오히려 10.7%로 약간 증가한 상태. 그러나 GDP 점유율은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 2000년 약 72만 가구가 624,215 헥타르 경작(가구당 평균 경작지 : 0.97헥타르)
- 2002년 WTO 가입으로 인한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으로 쌀, 땅콩, 설탕, 닭고기, 청어 등 그동안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온 41종 농수산물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음.
- 2008년까지 시행예정인 국가발전 중점계획에서 농축수산업 분야의 과학기술화, 자동화, 전자화 및 각 분야 시험소 및 개량장 설립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1차 산업 종사자의 급속한 고령화(45세 이상 인구 비율 : 80%)
- 농업위원회가 농수축산업 관장
 - 1차산업 소득증대 및 전문화를 위한 제반 유인책 시행

2) 농 업

- 농업의 영세성 : 75% 이상의 농가구가 1헥타르 미만을 경작해 농업의 기업화·전문화를 저해
 - '96년 입법원은 농업발전조례를 개정, 농지의 이전·상속·분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95년부터는 '농지석출방안'을 시행해서 농경지의 용도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농지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
 - 자영농 비율 감소 추세 : 58.2%
- 농촌인구구조의 노화 심화 : 65세 이상 인구가 52만명, 농가 총인구수의 14% 차지
- 농목축업 종사자가 2002.12 현재 전체인구의 약 17% 차지
- 쌀
 - 농경의 약 44%가 쌀 경작에 종사, 그러나 쌀재배 농가수 및 면적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대만 정부는 경작물 전환을 권장중
 - 정부는 쌀 운반, 보관 등의 편의 제공 및 수출알선, 벼품종개량 등의 정책 시행
 - 농가소득 보장 및 적정 비용 보전을 위해 '74부터 정부가 쌀 구매
 - 2003년도부터 관세쿼터제로 전환, 144,700톤 이외의 물량에 대해 kg당 NT\$45의 관세 부과 결정
- 빈랑열매(betel nut)
 - 열대·아열대 지방 사람들이 즐겨 씹는 열매로서 농산물중 쌀 다음의 고수익 작물
 - 80년대 이후 생산 급증
- 기 타
 - 시설재배 작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중 채소, 과일 재배 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 최근에는 청정비료 작물인 Sesbania 재배가 대폭 증가, 10년 사이에 재배농가 및 면적이 200% 이상의 증가를 보임.

3) 수산업

- 27,000여척 어선이 연간 130만 톤의 어획고 기록
 - 이중 약 30% 이상을 수출
-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로 판매기준 42%는 원양·심해 조업, 36%는 양식업을 통해서 획득
 - 대만 정부는 어족 자원 보존 차원에서 조업 선박수를 감축하기 위해서 선박환매 추진중

4) 축산업

- 양계, 양돈이 주류를 이룸
- 약 15,000농가가 연간 520여 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음.
 - 일본 등지에 주로 수출해왔으나, 2000년도 구제역 발생 이후 수출 전면 금지로 사육농가가 크게 줄어든 상태임.
- 최근 우유 소비 증가로 양, 젓소 등 사육 증가, 특히 양사육 수량이 6만5천두로서 90년대 초에 비해 202% 증가
- 동 분야의 연간 무역 적자액은 35억불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적자폭은 지속 확대 예상 : 전문화·기업화가 시급

마. 무 역

□ 개 요

- 수출입 규모는 2003년 2,714억불, 2004년 3,418억불, 2005년 3,709억불로 증가하였고, 무역흑자규모는 2003년 169억불, 2004년 61억불, 2005년 78억불을 기록하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으로 대만의 홍콩 등 제3지역을 통한 대중국 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대외교역의 중국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은 2005년 현재 대만의 1위 교역시장이며, 최근 5년간 중국(홍콩 포함)과의 수출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중국으로 수출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5년 37.8%로, 수입비중은 6.0%에서 12.0%로 대폭 증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

□ 대외무역 정책방향

- 자유경쟁시장 지향

- 점진적 수입개방, 관세율 인하
- 중소기업 위주의 첨단·고부가가치 업종 공략
- 신흥시장 중심의 해외 시장 다변화

6. 사회 · 문화

가. 인 구

□ 인구정책

- 대만 행정원은 1964년부터 가족계획을 실시하였으며, 1967년부터 처음으로 “인구정책”이라는 표현 사용 시작
 - 1968년의 「대만지구 가족계획 실시규정」, 1969년의 「중화민국인구정책강령」, 「인구정책추진법」 등
- 「중화민국인구정책강령」은 이미 1965년부터 시행된 산아제한의 확대와 우생보호법(1985년 1월 공포) 등에 의해 인구증가 추세를 억제하는데 큰 성과 거양
 - 동 강령 시행당시 2.29%였던 인구 자연증가율은 3년 후인 1972년에 1.94%로, 1994년부터는 1%를 하회하는 정도로까지 저하
- 1988년에 ‘대만지구 장기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인구정책강령과 정책법안을 수정하는 등 인구정책을 조정했으나, 1991년부터 국가건설 5개년계획이 실시되고 있음에 따라 노동력의 부족 그리고 인구도시화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구정책을 다시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
 - 현행 강령의 “인구강령의 시행과 함께 가족계획을 실시하여 인구증가를 억제한다.”는 총칙을 “인구의 합리적인 증가를 도모한다.”로 개정할 방침
- 2002년 내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불임부부를 위한 인공수정 기술 제고,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시설 확충, 6세 이하 아동 의료비 보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비 지원 등으로 하는 「출산 장려 조치」 실시

□ 문제점

- 남녀 신생아 출생비율 : 103대 100(세계 평균 105:100)
- 사회의 고령화(인구증가율 둔화 및 사망률 저하)로 차후 국가생산성에 차질 우려
 - 종래 정부가 가족계획을 적극 추진하자 출생율, 특히 여아 출생율이 현저히

감소

- 인구 고령화를 우려해 92년부터는 출산 장려 정책 추진중
- 대만의 인구밀도는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세계 2위
 - 인구의 약 60%가 4대 도시인 대북, 고웅, 대중, 대남에 집중, 대북현 일부 지역은 인구밀도가 41,139명/km²에 달함.(대북시 9,626명/km², 전국평균 669.2명/km²)
 - 최근 들어 인구의 대도시 집중경향이 완화되고 있는 중

□ 대만 원주민

- 종래 산월포족이라 지칭했으며 현재 대만내에는 9개 소수민족이 거주
 - 태아족, 새하족, 포농족, 추족, 배만족, 노개족, 비남족, 아미족, 아미족
 - 12,000~15,000년 전부터 대만에 거주했으며 남중국 또는 대양주 계열
 - 지난 3세기 동안 한족과의 동화로 평야에 거주하던 여러 부족(통산 평포족이라 지칭)이 소멸
 - 현재, 약 464,961명의 원주민이 대만에 거주
 - 고산족 약 246,320명, 평야 거주족 218,641명
 - 원주민의 1/3 정도는 아미족이며 난서에 거주하는 아미족은 4,500여명에 불과
 - 행정원 원주민위원회가 업무를 총괄
 - 헌법상 원주민 보호
 - 입법원의 일부 의석을 원주민에게 할당
 - 산월포족이라는 차별적인 통칭을 94년 수정헌법에서는 원주민으로 개칭
 - 보호구역 설정, 대학 입학·공무원 시험 응시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시혜성 정책을 취해왔으나 한족에 비해서 소득·교육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며 대도시 거주 원주민들은 실업·알콜 중독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
- ※ 아미족을 제외한 여타 부족은 급속히 동화되는 추세

나. 사회복지

□ 개 관

- 산업화로 핵가족이 가정의 기본구성단위가 되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가정외 사회 집단에서 부조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종래의 대가족 제도와는 달리 생활능력 없는 이들이 부양을 못 받는 형편

- 급속한 사회 변화로 청소년 문제 및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문제 발생
- 내정부 사회사가 총괄하며 99년의 경우 예산의 16.4%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

□ 아 동

- 12세 미만인 아동은 인구의 14.47%에 달하며 아동복지법('73제정)에 의거 보호
 - 태아 보호를 위한 산모의 사생활 제한, 부양의무, 아동학대 규제책 등 규정
- 전국민건강보험(NHI) 이 '95.3.1 시행됨에 따라 모든 아동의 기본의료 서비스 및 기초 건강진단 무료 제공
- 아동탁아시설 확충
 - 2005년말 현재 4,307개(공립 280, 사립 3,960, 지역 67)가 있으며 소학교에도 탁아시설을 설치, 운영

□ 청소년

- 미취학·취업 청소년에 대한 계도 강화 필요성 대두
 - 범죄층의 저령화, 각성제 이용 급증
- '93. 5.12 마약과의 전쟁선포
- 청소년 상담 기능 확충
 - 2006.6 현재 각 지방정부에는 56개(공립 38개, 사립 6개, 기타 12개)의 청소년서비스센터 운영
- 미성년자 매춘 금지('96 '아동 및 청소년 매춘 방지 조례')
 - 미성년자 의제강간, 매춘 알선자·고객 처벌 규정, 교화 시설확충

□ 여 성

- 전통적인 여성관 변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 충족 필요
 - 만혼 및 미혼 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초혼 연령 : 2005년, 27.4세) 출산율은 저하되는 추세로, 평균출산 연령은 25-29세에 집중
 - 이혼율 증가에 따른 법제 개정 및 사회 인식 변화 필요성
- 여성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85년 촉진취업조시 실시
 -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제반 지원 제공
- '85, '96년 민법 개정을 통해 자녀 양육권, 재산권, 등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던 조항 개정

- 기혼 여성 재산의 남편 귀속 간주조항 폐지, 여성의 자녀양육권 허용 등
- '98.6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 2003. 3월 취업상 여성의 불이익이 없도록 양성공작평등법 시행
 - 육아휴직제 실시, 직장내 성폭력 방지, 직장내 탁아시설 설치 지원, 남녀 불평등 대우 방지를 내용으로 함.

□ 노 인

- 65세 이상 노인의 64% 이상을 가족들이 부양하나 단독거주 고령층 증가추세
 - 노인복지법(80년 제정)에 의거 70세 이상 노인의 주거, 의료, 교통 등 제반 분야 지원
 - ※ 2002년 65세 이상 인구는 8.95%로 10년전 비교 52.7% 증가
- 일부 부유한 지자체(태백시, 고령현, 태남현 등)는 여타 연금 혜택을 못 받는 65세 이상 주민에게 매월 US\$88-\$185 제공
- 全民건강보험에 의해 저소득 노인은 무료 의료서비스 혜택
- 양로원, 노인거주 주택(silver town) 확충

□ 장애인

- 대만 전역에는 약 937,943명의 장애인이 거주(신심장애수책 소지)
 - 장애인 단체는 특수이익단체중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조직
- 신심장애보호법에 의거 제반 지원책 마련
 - 사업장 장애인 의무 고용, 공직 특별채용, 직업훈련 및 알선 규정
- 전국민건강보험에 의거, 중증장애자는 무료의료서비스 수혜 혜택

□ 극빈층

- 매년 정부가 책정하는 '최저생계비용'에 못 미치는 저소득 가정들을 대상으로 각종 공공부조 제공
 - 약 211,292명(인구의 0.93%)이 극빈층으로 분류되어 지원 수혜
- '93.7 극빈층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보조금 지급 시작
- 일부 극빈층은 자녀수에 따라서 보조금 수혜
 - 극빈층 가정 지원 예산의 2/3는 중앙정부가 지원
 - 부유한 지자체는 할당량 1/3보다 많은 액수 지원 가능

다. 교 육

□ 개 관

- 전통적으로 중국 사회는 교육이 중시되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듯 대만 헌법 제 164조에는 의무교육관련 최소 지출액까지 명시
-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의 교육 정책은 대학교육에 치중하여 왔는바, '97.7.18 헌법 수정(추가 조항 10조)에 의거 의무교육 9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의무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민진당은 의무교육기간을 12년으로 확장하는 방안 추진 중
 - 2005년도에 대만 정부는 교육·과학·문화 분야에 약 94억 미불을 지출
- 의무교육 9년제는 '68년에 규정되었으며 2002 학년도에는 6-21세 연령층 중 각급 학교에 취학한 비율은 약88% 수준(소학교 연령층의 취학률 약99.4%)
- 2005학년도에는 총 8,287개의 등록된 학교에서 교사 1인당 19.29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었으며 학급당 학생수는 29.2명
 - 문맹율은 4.2%(15세 이상, 2005)
- 교육부가 교육정책 담당
 - ※ 지방정부에는 교육청·교육국 설치

□ 취학전 교육

- 취학전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81 유치교육법을 제정
- 2005학년도에는 3,351개의 등록된 유아교육 기관에 224,219명이 등록(공립 1,474개, 사립 1,877개)
 - 2005년말 현재 탁아소는 4,307개(공립 280개, 사립 3,960개, 지역 67개), 290,218명이 취학
-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사설 유치원에 취학시키려고 하며 정부는 학부모들의 광범위한 유아 교육열에 부응키 위해서 각급 학교에 부설 유치원을 수립 작업중
- 6세 유아 취학율이 2005년도에는 99.4%에 달함

□ 의무교육

1) 개 요

- '79년 국민교육법을 제정, 6-15세의 아동은 6년의 소학교육과 3년의 중학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을 명시
 - '82년 강박입학조례를 개정, 6-15세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을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
 - 민진당은 12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중
- 2005학년도에 의무교육 대상자중 98%가 각급학교에 취학중
 - 소학교 졸업자의 99.3%가 중학교에 진학하였으며, 중학교 졸업자중 95%가 상급학교에 진학
- 2005학년도에 183만명의 학생이 2,655개의 소학교에 취학하고 있으며 951,236명의 학생이 732개의 중학교에 진학

2) 소학교

- 52, 42%에 달하던 문맹율은 소학 교육의 확충으로 '97년에 5.68%, 2001년 4.2%, 2005년 2.67%로 감소
- 2004 학년도에 정부는 소학교생 1인당 2,783 미불을 지출하였으며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9.3명 수준

3) 중학교

- 중학교에서는 인문·상업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며 중학 졸업자는 상급학교(인문·상업계로 분류)에 진학하기 위해 시험 응시
- 2005학년도에 86만여명의 학생이 717개의 공립중학교에 취학하고 있으며 15개의 사립 중학교에 9만여명이 취학
 - 학급당 학생수 : 35.5명
- 2005학년도에 96.4%의 중학 졸업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였으며 고등학교(고중)에 진학하기 위한 시험인 연합고사는 폐지되고, 2001학년도부터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정상화 실시로 입학제도를 수정하여 기초학력 측정시험, 특기, 대외활동, 품행 등을 평가하는 다원화 방식으로 학생 선발

□ 고등교육

- 대만의 고등교육은 인문교육 및 상업교육으로 나뉘며 상업교육은 3년제, 5년제, 기타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복잡

- 2005년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고중)는 314개(공립 177개, 사립 137개)로 총 420,608명이 취학, 3년제 상업계 고등학교(고직)은 157개(공립 93개, 사립 64개)로 331,604명이 취학
 - 의무교육 이수자중 5% 내외만이 상급학교에 진학
- 대만 정부는 사회의 인력 수급사정에 따라서 인문계·상업계 고등학교의 숫자를 조정
 - 예컨대 70년대에는 상업계 교육기관을 확충하다가 80년대 이후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의 수요가 증대하자 인문계 고등학교의 숫자를 증가
- 현재 인문계 대 상업계의 비율은 55.9 : 44.1
 - 고중 학생들은 주로 대학 입학에 위한 학력측정시험 준비
 - 2005 학년도에는 고중 졸업자의 85.15%가 상 4년제 대학을 비롯한 각종 상급교육 기관에 진학하였으며 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76.07%가 상급학교에 진학
- 2000년대 이전에는 고등학교 이수자가 각종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연고 통과가 필요했으나, 교육개혁을 통해 다원화 방식으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학생이 학력측정 시험에 의해 진학
- '96년부터는 인문·상업 교육을 통합한 시험 고등학교를 운영 중

□ 대학교육

- 대만의 대학교육은 4년제 일반대학, 단과 및 초급대학(2년제, 3년제, 5년제)등으로 분류
 - 4년제 대학은 우리나라의 일반 대학에 해당되며 주로 고중 졸업자가 학력평가시험 및 다원 방식으로 진학
 - 단과 및 초급대학 졸업자도 4년제 대학에 편입 가능
 - 단과, 초급대학에서는 주로 전문 교육 및 기술교육 실시
- 2005학년도 현재 89개 일반대학(880,977명), 56개 단과대학(234,695명) 및 19개의 초급대학(180,886명)이 있으며 총 1,296,558만명이 재학중
- 대학원 이상에 재학중인 학생은 약 11만여명이며 석사학위 취득에는 2-4년, 박사학위에는 3-7년이 소요

□ 기타교육

- 지진아·장애자 및 영재교육 과정을 특수학교, 일반학교 등에 개설
- 사회교육법에 의거, 각종 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중(‘공중대학’라고 불리는 방송통신대학 2개 포함)
- 대만도 입시경쟁이 치열하여 사설 입시학원 및 각종 자격시험·외국어 학원·기술·예능 학원(보습반)이 성황중 : 2005년 현재 15,926개의 허가된 보습반 운영

□ 최근의 교육개혁

- 대만의 교육은 다수의 숙련된 인적자원을 배양하고 문맹률을 줄인 것으로 평가받는 반면에 교육 체계가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바, 최근의 교육개혁을 통해서 교육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강구중
- 노벨상 수상자인 이원철을 위원장으로 ‘94년 교육개혁심의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교육개혁 가속화
 - 과도한 입시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연고를 폐지하고 대학 증설 및 초급대학들을 일반대학으로 승격
 -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
 - 인문·상업 통합 교육을 실험
 - 대학 입시에서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전공 선택의 자유를 확대
 - 민진당은 대만 ‘본토화’를 추진하면서 청대, 중화민국사를 ‘세계사’에 편입시키고 ‘대만사’를 중점 교육하는 방안 추진중

라. 환 경

□ 개 관

- ‘6~70년대의 고도 성장기에는 환경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여 왔으나 ‘8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민주화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 등에 의해서 환경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
- 대만의 인구는 '06년 10월 현재 2,285만명이며, 631명/km²의 인구밀도를 가진 지역으로서 환경문제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심각
 - ‘90년대 들어서는 성장과 외부 비경제성 즉, 환경파괴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실시 중

- 법제 정비를 통해서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해 국내적인 청정 환경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법제를 적합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
- 환경보호서(EPA)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관장

□ 대기오염

- 현재 1km²당 2.48개의 공장과 545대의 승용차가 등록 중
 - 총 1650만대의 승용차가 있어(549만대의 자동차, 1,100만대의 이륜자동차) 타이베이 같은 대도시의 대기오염의 95% 정도는 승용차 배기가스에 기인 (2005년 현재 기준)
- 대만의 오염기준지표(PSI) 평균 수치는 56(최고59, 최저44)으로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3배가량 높은 수준
- 대만정부는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95.1 부터는 휘발유에 대기오염 목적세를 부과, 이 금액을 환경 보존을 위해서 사용
- LPG 사용차량 이용 권고('96년 LPG 연료 공급소 처음 도입)

□ 소음공해

- 소음측정소를 다수 설치하고 있으며 조음관제법에 의해 폭죽을 비롯한 소음 유발물 들을 전면 불허
- '96년부터는 비행기에 대해서 일종의 소음부담금 징수 중

□ 수질오염

- 대만의 하수처리능력은 28.4%에 불과해 선진국의 94%는 물론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하수처리능력이 떨어지는 상황
 - 타이베이시는 72년에 하수처리를 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현재 하수처리 능력은 약81%, 하수도 보급률이 72.1%
- 2003. 3 현재 대만 수자원의 약 30%가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약 1/3은 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
- '91 수오염방지법을 개정해서 환경 부담금을 물게 하고 있으며 해수 및 저수지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법제 정비 및 제반 정책 추진 중

□ 쓰레기

- 대만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85년 670g/일에서 '97년 1.15kg/일로 증가하여 연간 890만 톤의 가정 쓰레기가 발생하며 산업폐기물은 연간 약 1200만

톤이 발생

- 대만의 쓰레기 처리 능력은 가정용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도 역부족
- EPA 조사결과 쓰레기의 40%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재활용 처리 시설이 이에 못 미치는 상황이며, 자원회수사업일계화를 '97년부터 시행해 재활용을 위해 업체, 감사반, 쓰레기 수거자, 정부, 시민이 공동 노력 중
- 2000년 기준 쓰레기 배출량 890만톤, 재활용품 수거율 9.7%에서 2004년 현재 쓰레기 배출량 780만톤, 29%의 재활용품 수거율 수준까지 올라 감.
- '05년 4월부터 현,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06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 3가지로 쓰레기 자원 분류 : 일반 쓰레기, 음식 쓰레기, 재활용품
- 태북시는 2001년부터 쓰레기 봉투 의무화(서울시에서 전수)
- 2002년 현재 매년 약 20만톤의 독금성 산업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독화물 관리법에 의해 이를 규제중
- 2003.1.1부터 대형매장, 편의점 및 식·음료업체의 1회용 용기 및 비닐봉지 사용금지 실시

마. 교 통

□ 개 관

- 교통 시설 확충은 대만 국가 건설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으나 급속한 산업 발전에 의해서 만성적인 사회간접 자본 부족에 직면
 - '70년대의 십대건설 계획부터 '90년대의 국가건설육년계획까지 꾸준히 교통에 투자
- '아태영운중심계획' 시행을 '95.1 공식 결정함에 따라서 대만을 2000년대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사업 전개
- 90년대 들어 도로, 철도, 지하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
 - 입법원은 '95. 5 건설을 허가했으며 총 150억 미불을 들여 타이베이와 카오슝을 잇는 총연장 345km의 고속철로 건설
 - 고속철로 완공시 타이베이-카오슝간 약 90분소요(기존 육상 교통수단으로는 4시간 소요)

7.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개 관

□ 관계략사

- 48.8.13 대만(중화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승인 예정 각서를 우리측에 전달
- 48.11.7 대한민국 주중특사관 개설(초대특사 : 정항범)
- 49.1.4 대만(중화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식 승인
- 49.8.15 주대북 대한민국 영사관 개설(초대영사 : 민석린)
- 49.8.25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초대대사 : 차석우)
- 92.8.24 단 교

□ 비공식 관계 수립

- '93.7 양측은 '92.8 단교로 인해 단절·정체 상태에 있던 경제·통상 등 민간차원의 교류를 재개기로 합의
- 이에 따라 양측은 서울과 타이베이에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한 비공식 대표기구로서 각각 대표부 설치
 - 주 타이베이 한국대표부('93.11 개설), 주한타이베이대표부('94.1 개설)

나. 현 황

□ 개 요

- '92.8 단교와 함께 정부차원의 공식적 정치·외교 단계도 단절
- 다만, 경제·통상 등 비정치 분야의 민간차원 교류는 계속 유지중

□ 단교이후 한·대만관계 주요일지

- 92.8 한·대만 단교
 - 대만측 보복조치 : 과실 및 자동차 교역중단, 항공기 취항금지
- 93.7 한·대만간 비공식관계 수립 합의(오사카)
 - '93.11 타이베이 및 '94.1 서울에 각각 대표부 설치
- 94.5 제1차 과실교역회담 개최(서울) : '96. 9까지 총 4차례 회담 개최
- 95.3 제1차 항공회담 개최(타이베이) : 협정용어 등에 대한 양측 이견으로 결렬
- 96.8 우리측, “한·대만 의원친선협회” 결성
 - '96.12 대만측, “중(대만)·한 국회의원 연의회” 결성

- 96.10 대만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타결 및 한국산 자동차의 대만 수출 재개 합의(제네바)
- 2003.1 한·대만 항공기 전세 취항
- 2004.9 한-대만 민간항공협정 체결

인적교류

(단위: 천명)

구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만방문	75	72	73	72	84	136	173
한국방문	149	155	157	162	229	346	393
계	224	227	230	234	313	482	566

■ 태 국 (Thailand)

① 개 관

- 국 명 : 타이랜드 왕국 (Kingdom of Thailand)
- 국 기 : 민족, 왕실, 종교를 각각 상징하는 적색, 청색, 백색 등 3색으로 되어 있음(1927년 채택됨)
- 정 체 : 입헌군주제
- 국가원수 : 푸미폰 국왕 (His Majesty King Bhumibol Adulyadej)
 - * 차크리왕조 제 9대왕 (1946. 즉위)
- 정치형태 : 내각책임제
- 총 리 : 수라윳 출라논(Surayud Chulanont)
 - * 제25대 총리(2006.10.1.임명)
- 의 회 : 양원제
- 수 도 : 방콕 (Bangkok : 인구 약 564만명)
- 면 적 : 51.4만 Km² (한반도의 2.3배)
- 인 구 : 6,499.7만명 (2005년도말)

- 민 족 : 타이족 (81.5%), 화교 (13.1%), 말레이족 (2.9%), 기타 (2.5%)
- 종 교 : 불교 (소승불교, 국민의 95%가 불교도)
- 언 어 : 타이어 (공용어)
-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후이며, 3계절로 대별됨 (3월~5월 고온, 6월~10월 우기, 11월~2월 비교적 저온)
 - 년평균 기 온 : 28℃ (최고 32.5℃, 최저 23.7℃)
 - 년평균 강우량 : 1,600 mm
 - 년평균 습 도 : 79% (최고 94%, 최저 60%)
- 서울과의 시차 : - 2시간
- 화폐단위 : Baht (1Baht = 100Satang), US\$1 ≒ 36.50 Baht(2006. 11월)
- 주요자원 : 천연고무, 타피오카, 쌀, 주석, 텅스텐, 안티모니, 천연가스
- 주요 경제지표(2005년말)
 - 국 내 총 생 산 : 1,764억불(7조1,030억바트)
 - 1인당 GDP : 2,724불(109,676바트)
 - 경 제 성 장 륜 : 4.5%
 - 수 출 : 1,108.8억불
 - 수 입 : 1,182.3억불
 - 외 환 보 유 고 : 520.6억불
 - 외 채 : 514.3억불

1.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

- 최근 태국경제는 2003년도에 경제성장률이 6.9%, 2004년도에는 6.1%(잠정)를 기록하는 등 중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역내국가중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를 실현
 - 2004년중 조류독감, 태국 남부지방의 회교도 분리주의자들의 계속된 소요,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불안요인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2003년도에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제회복세 가시화와 중국 등 국가들의 경기호조세로 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투자 및 정부지출이 확대된

가운데 태국정부의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하여 2004년중 6.1%(잠정)의 경제 성장율을 달성

- 이 같은 태국경제의 호조세는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탁신정부의 적극적인 정부지출 확대 및 저금리정책 추진과, 환율안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유지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 중장기적으로는 2001.1월 탁신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제구조 개혁, 1촌1품 운동(OTOP) 등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IT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구조 전환추진 등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2005년도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2004년보다 다소 둔화되어 태국의 중기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5.5~6.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이는 내년에 세계경제의 확장세 둔화로 인한 수출여건의 악화와 함께 국내 유류가격 제한조치의 폐지에 따른 물가상승, 금리인상 추이 등으로 민간소비, 투자가 금년보다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임

2. 태국정부의 중점 경제정책

가. 기본전략

- 탁신정부는 종래의 일본형 개발전략인 동아시아형 개발 모델에서 탈피하여 대내외 발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Dual Track Development Strategy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 태국의 핵심 역량을 중국, 인도 등 신흥발전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Niche 산업 발전에 집중기로 함

나. 대내 경제정책

- 거시경제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금융 및 기업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
 - 세계 수출시장에서 태국에 비해 30~40%의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과 전방위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 동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농수산업, 패션, 자동차, ICT, 관광 등 서비스분야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태국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참고로, 종전에는 방콕 인근의 공단지역 등의 Zone을 중심으로 각종 세제감면 등 유인책을 부여하면서 FDI유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앞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농수산업, 패션, 자동차, ICT, 관광 등 서비스분야 등 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진출하는 FDI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기로 함.
- 또한, FDI유치만이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태국으로 가져와서 태국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탁신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 등 Grass roots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OTOP(One Tambon One Product) 정책의 내실을 기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 금융기관 설립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향후 5년간 2조바트를 SOC 확충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도로, 철도 등 교통체계를 선진화하고 방콕 북쪽에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방콕의 교통혼잡을 완화함과 동시에 유효수요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다. 대외 경제정책

- 태국은 대외적으로는 ASEAN+3, 메콩강 발전계획, 중국, 미국, 일본 등과의 FTA 추진 등 역내 경제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내 각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ASEAN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AFTA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등 각국과 양자간 FTA 체결을 위한 노력도 경주
- 참고로 태국은 중국, 호주, 인도 간에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음
- 한편, 메콩강유역 개발계획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태국의 주도로 인접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정상간에 합의된 ACMECS (Ayeyawady - 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적극 추진함으로써
- 태국이 향후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접국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태국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3. 한.태 양국의 경제관계

- 전통적인 우방관계인 한국과 태국은 최근 들어 경제협력측면에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먼저 **양국간 교역규모 추이**를 보면
 - 2004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대태국 수출 32.5억불, 수입 23.5억불 등 56억불로서 우리나라가 9억불 흑자를 기록했었음
 - 그러나, 2005년 1월중 양국간 교역규모가 수출 2.81억불, 수입 1.82억불 등 **4.63** 억
 - ※ 주요 수출품목은 산업기계, 산업용전자제품, 전자부품, 철강제품 등이고 수입품목은 가전제품, 농수산물 등임
- 우리나라의 **對태국 투자추이**를 보면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진하였던 대태국 투자규모는 2001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여 2002년 74.7백만달러, 2003년에는 85.5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 **2004년중에는 164.6백만달러**로서 최근 대태국 투자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약 200여개의 아국투자업체가 진출해있음
 - 이를 분야별로 보면 최근 삼성전자가 전자레인지 라인을 태국으로 이전하는 등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전기,전자,기계금속 부문이 76.2%** 을 차지
 - 최근에는 **삼성, LG전자가 태국을 동남아진출의 전략 거점지역으로 선정**하고 설비투자를 확대하여 왔는데, 이에따라 관련 중소기업의 대태국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
- 한편, **태국을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의 수**를 보면
 - 2002년 72만명, 2003년 70만명에 머물렀었으나, **2004년에는 95만명**에 이르렀고 2005년도에는 1백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어 있어 태국을 찾은 외국관광객중 일본, 말레이시아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양국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
 - 첫째, 최근 대태국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투자규모가 일본 등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며 주로 전기, 전자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

따라서, 지난해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확정된 한,아세안 간 FTA의 조기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향후 전기, 전자만이 아니라, 자동차, 섬유, 식품가공업 등 기술적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태국을 인근 동남아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뿐만 아니라 태국의 높은 소득수준과, 앞선 인프라 수준을 감안, 향후 중국 및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거점으로 활용할 필요

- 둘째, 현재 태국내에 한국계은행이 한곳도 없어 아국의 투자업체들이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지연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방콕지점 설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경주할 필요

- 셋째, 태국을 찾는 한국관광객이 약 1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태국내 한국여행업계의 고질적인 과다경쟁으로 인한 Zero마진 관광 등으로 여전히 싸구려 관광객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적정한 여행비용은 지불하되 정당한 관광서비스를 받는 가운데 양국간의 건전한 문화,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관계기관 및 업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

4. 주요협정체결 현황

1961.9 무역협정 체결

1963.5 무역전시품 면세통관협정 체결

1967.7 항공협정 체결

1967.10 관용여권 사증 및 수수료 면제협정 체결

1974.8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1977.10 운수소득면세협정 체결

1981.11 사증면제협정 체결

1985.6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1989.3 투자정보협정 체결

2002.5 해운협정 체결

2 대외관계

1). 대아세안 정책

- 1967년 아세안 결성에 적극 참여이후 아세안의 결속 및 발전에 주도적 역할 추구
-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 인근국가와의 관계증진 주력
 - 제 5차 아세안 정상회담 개최(95.12. 방콕)시 동남아 10개국 정상회담 개최
 - 아세안과 인도지나, 미얀마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양자를 통합, 태국이 중심 국가가 되는 광역 경제권 결성을 궁극적 목표로 추진(ACMECS)
- 아세안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내 안보대화 관련, 아세안 제국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례 아세안 외무장관회담(AMM),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담 (PMC)등 정치안보협력을 위한 협의의 장을 확대, 역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아세안 안보포럼(ARF) 추진
- 95.12. 방콕개최 제 5차 아세안 정상회담시 동남아 비핵지대화 조약(SEANFZT) 채택 주도후 비준서 기탁국으로서 조약발효(97.3)에도 중심 역할
- ASEAN Vision 2020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의 협력 강화지지

2). 주요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

(1) 대미국 관계

- 인도지나 공산화이전, 태국은 SEATO 가입, 미국 군사원조 접수, 미군기지 제공 등 동남아에 있어 미국의 반공군사체제의 주요 역할 수행
 - 그러나 75년 인도지나 공산화이후, 동남아에서의 미군 철수 추세에 따라 4만 8천명의 주태 미군이 76.6. 완전 철수
- Kriangsak 정권(1976년) 이후 양국은 캄보디아 사태 및 베트남군의 태국 국경 침범 등 공산위협 점증에 따라 안보협력관계 강화
 - 매년 합동군사훈련 Cobra Gold 실시(싱가폴도 참가)
- 91.2. 태국 군부쿠데타에 대해 미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1,640만불의 대 태국 군사·경제원조를 중단하는 등 강경반응을 보였으나 캄보디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과 미·베트남 관계 개선에 관한 미측 입장 베트남 전달(92.1) 등으로 전통적 우호 관계 회복
- 94.10. Chuan 총리 방미시 Clinton 대통령의 “태국만” 해상 지원기지 설치

협조 요청 거부 및 리비아에 대한 태국 근로자 송출사건 등으로 일시 미묘한 상황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유지

- 9.11 사태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관련, 태국은 자국내 회교도를 의식, 미국의 세계적 테러 예방대책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주었으며, 2003.3월 미국 주도 대이라크 전쟁에 있어서도 태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데 대한 미국내 비판적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2003.6월 Cobra Gold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유지

- 2003.6월 Thaksin 총리 미국방문,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 단, 2006. 9월 태국군부 쿠데타 발생이후 미국의 유감 표명 등 비정상적 상태 지속중

- 태국측은 대미관계 회복에 전력을 경주중

(2) 대일본 관계

- 1887년 수교 이래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일시 국교가 단절되었으나 1952년 외교관계 회복

- 전통적으로 왕실간 교류를 중심으로 우호관계 유지

- 일본은 교역·투자·경제원조 등 경제관계 전반에 걸쳐 태국의 가장 중요한 상대국

- 정치·외교적으로 여러 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우호협력관계 유지

- 91.2. 태국 군부쿠데타와 관련 일본이 태국에 대한 신규원조(6억불 상당) 중단조치를 취함에 따라 관계가 일시 소원해졌으나 91.4. 가이후 일본 총리 및 91.9. 일왕 부처의 태국방문으로 호전

- 동남아를 중시하는 일본의 정책과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태국의 대일 정책이 양국관계 강화에 기여

- 93.1. 미야자와 일본 수상 방태

- 94.9. 추안 태국 총리 방일

- 97.5. Sirikit 왕비 방일

- 97.10. 차왈릿 태국 총리 방일

- 97.8. 태국의 경제위기와 관련한 IMF Package(총규모 172억불)에 일본이 40억불을 지원 약속 최대의 지원국이 됨.

- 99.10. Chuan 총리 방일

- 2000.1. 오부치 총리 방태
- 2001.11 Thaksin 총리 방일
- 2002.1 고이즈미 총리 방태
- 2003.6 Thaksin 총리 방일(니케이신문 주최 국제 세미나 참석)

○ 태국측은 일본의 투자와 기술이전을 환영하면서도 무역적자의 대폭확대 우려

(3) 대중국 관계

- 1975년 인도지나 3국 공산화 이후 구소련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중국과의 우호관계 추구(75.7. 외교관계 수립)
- 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및 점령이후 대베트남 및 캄보디아 정책에 공동 보조 유지
 - 베트남의 태국 침공시 중국 개입 약속
- 군사 부문에서 86년이후 태국의 군장비 현대화계획과 관련 중국이 T-69 전차 · 장갑차 ·야포 군함을 염가 제공함으로써 중국은 태국에 대한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
- 91.2. 태국 군부 쿠데타 발발시 중국이 군부 지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태국 군부 및 정부와 돈독한 유대관계 형성
- 94.2. 이등휘 대만총통의 사적 방문허용으로 대중관계에 일시적인 마찰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곧 회복되었고, 95.7.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우호 협력관계 지속
- 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대만과는 경제, 통상, 문화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1개 중국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중국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진력
 - 대만노동위원장(장관급) 방문비자거부 및 “화륜공인사” 추방 등 중국 요청 수용
- 2003.2월 Thaksin 총리는 중국 신지도부 출범 직전 중국을 전격 방문, 신구 지도층과의 유대관계를 확인
- 2006.9월 군부 쿠데타 발생이후 중국측은 외국 정부로서는 가장 먼저 과도내각 출범을 공식 축하하는 등 대태국 중시 자세 시현

(4) 대미얀마 관계

- 88.9. 출범한 미얀마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관련, 미국 등 서방제국의 대미얀마 압력이 현 군사정부를 더욱 자극하여 역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서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포용정책(Constructive Engagement) 견지

- 94.7. 태국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시 의장국의 게스트 자격으로 AMM에 미얀마 초청

- 95.7. 미얀마 정부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서 기탁

- 91.11. 이래 미얀마군의 태국 접경거주 소수민족의 반정부 게릴라 투쟁에 대한 소탕작전 중 발생한 국경충돌 및 태국군의 소수민족지원 문제 등을 위요하여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2002.5월 발생한 국경충돌 사건으로 양국 국경이 폐쇄되는 등 양국관계가 경색되었으나, 동년 10월 국경을 전면 재개함으로써 양국관계 정상화

- 2003.2. Thaksin 총리 미얀마 방문, 마약근절 및 소수민족문제 등 해결을 위한 대미얀마 협조 표명

- 2003년 제1차 미얀마 문제 방콕포럼을 주도, 미얀마 문제 해결에 주도적 노력

- 2004년 제2차 포럼을 계획했으나 미얀마측 사정으로 취소

(5) 캄보디아

- 91.10. 파리 평화협정 체결과 SNC의 본격 가동에 따라 91.7. SNC를 승인한데 이어 91.11. 프놈펜에 자국 대사를 파견하고 훈센 정부와의 교류도 적극 추진

- 93.5. 캄보디아 총선으로 성립된 연립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선린 우호관계 유지

- 94.1. Chuan 총리 캄보디아 방문

- 95.7. 캄보디아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

- 97.6. Chavalit 태국 총리 캄보디아 방문

- 2003.1 프놈펜에서 반태국 시위가 발생, 주캄보디아 태국대사관 및 태국인 소유 사업체 다수가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 국경이 폐쇄되고 외교관계를 공사금으로 격하하는 등 양국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캄보디아측이 피해를 보상하는 등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2003.5. 양국관계 정상화 회복

- 2003.5 Thaksin 총리와 Hun Sen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최초의 양국 합동 각료회의 개최

3. 태국 소재 국제기구현황

가. 유엔 아·태 지역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나. 유엔기구 아·태 지역사무소(16개)

-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 국제노동기구(ILO), 식량 및 농업기구(FA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IBRD), 국제재무사(IFC),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세계체신연맹(UPU), 국제통신연맹(ITU)

다. 기타 국제기구(8개)

- 아시아 공과대학(AIT), 아·태 체신협의체(APT), 국제이민기구(IOM) 아·태지역사무소, 동남아 교육장관기구(SEAMES), 천해저 광물자원 공동탐사기구(CCOP), 동남아 수산개발센터(SEAFDEC), 아·태 양식연계센터(NACA), 국제적십자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ICRC)

4. 태국의 재외공관(2006.11월 현재)

- 대사관 및 대표부 : 62개
- 영사관 : 19개

5. 태국주재 외국공관

- 대사관 : 66개
- 영사관 : 11개

[3] 정 치

가. 정 체 : 입헌군주제

1) 1932.12.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 헌법 채택

- 1932.6. 청년장교 및 관료를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 쿠데타 발생, 입헌군주제 도입

2) 현 헌법은 2006.10월 공포된 과도 헌법

- 2006.9월 군부 쿠데타로 기존헌법(1997년 헌법) 폐지
- 제헌위원회에 의한 신헌법 제정 추진중

나. 국가원수 : 국왕

1) 기 능

- 의회, 행정부, 사법부를 통해 각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행사
-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

- 내각 및 18명 이내의 추밀원(Privy Council) 위원, 각급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권위원회 위원, 반부패위원회 위원 등 임명
- 2) 현 국왕 : His Majesty King Bhumibol Adulyadej(푸미폰 국왕)
 - 1927.12.5생(만79세)
 - 현 Chakri 왕조 제 9대 왕(라마 9세)
 - 1946.6. 형인 라마 8세 Ananda 국왕의 변사로 왕위 계승
 - 1950.5. 대관식 거행
- ※ 왕 비 : Her Majesty Queen Sirikit
 - 왕세자 : His Royal Highness Crown Maha Vajiralongkorn
 - 공 주 : Her Royal Highness Crown Princess Maha Chakri Sinindhorn

다. 정 부

- 1) 형 태 : 내각책임제
- 2) 내 각
 - 구 성 : 총리 1명과 각부 장관 및 부장관등의 각료로 구성(국왕이 임명)
 - 현 내각은 2006.9월 발생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의 추대에 따라 국왕이 임명한 수라윳 초라논 총리 등 과도내각
- 3) 총 리
 - 임기 4년
 - 헌법상 국왕이 임명하고 국회의장이 부서하며, 하원의원만이 총리에 임명될 수 있음.
 - 단, 총리 임명후에는 의원직 사퇴
 - 신헌법 규정상 총선후 하원 첫 소집후 30일 이내에 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총리 지명자를 국회의장이 국왕에게 임명제청
 - Thaksin 총리는 2005.3.9 제 24대 총리로 재선출
 - 탁신 총리 일가의 비도덕적인 거액 주식 매각을 기점으로 하원 해산되고 2006.4.2.총선이 실시되었으나, 국왕과 사법부의 개입으로 총선 무효 결정.
 - 2006.9.19. 군부 쿠데타 발생
- 4) 지방행정 : 1개 특별시(방콕), 76개 주(Changwat), 1개 직할시(파타야), 749개 군(District), 7,222개 면(Tambon)

- 1997년 헌법에 의해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 관리는 임기 4년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
- 단, 현재까지는 방콕 시장만 민선되었으며 주지사, 여타 시장들은 내무장관이 임명
 -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 선출됨

라. 국 회

- 원래는 1997년 헌법에 따라 상원(200명) 및 하원(500명)의 양원으로 구성
 - 모두 직접 선거에 의한 선출직 의원들로 구성
- 2006.9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에는 상원 성격의 "국가입법회의(NLA)" 와 하원 성격의 "국가국민회의(NPA)" 로 재편
 - 예산, 입법, 감사 등 주요 기능은 300명으로 구성된 NLA 가 보유
 - NPA 는 신헌법 제정 추진 과정 감독

마. 사 법

1) 연 혁

- 1907년 근대 사법제도 확립
- 1932년 사법권 독립이 헌법상 보장

2) 제 도

- 제 1심
 - 중앙(14개소) : 민사재판소, 형사재판소, 간이재판소, 중앙소년재판소, 노동재판소, 조세재판소
 - 지방(119개소) : 지방재판소, 간이재판소, 지방소년재판소
- 제 2심(4개소)
 - 중앙 항소 재판소 : 방콕 및 중부지역 관할
 - 제 1지방항소재판소 : 동북지역 관할
 - 제 2지방항소재판소 : 북부지역 관할
 - 제 3지방항소재판소 : 남부지역 관할
- 최결심(1개소) : 최고재판소

4 군 사

가. 개 관

- 국군통수권 : 국왕이 행사
- 국군 조직
 - 육·해·공 3군으로 편성
 - 기타 내무부 산하에 공산 게릴라 체포 및 국경경비를 위한 경찰보유
- 병역제도 : 의무병역제(2년간 복무)
- 국 방 비 : 2006회계연도 21.5억불(예산 총액의 약 8.2%)
- 병력수준 : 총병력 31.5만
 - 육군 : 19 만
 - 해군 : 7.7만(해병 포함)
 - 공군 : 4.8만
 - 국경수비 경찰 : 1.8만

나. 군의 특성

- 형식적인 3군 통합군 체제
- 국왕은 상징적 군통수권자이며, 실질적으로는 수상(국방장관), 최고사령관 및 각군 사령관이 군사 장악
- 군전용 방송 운용(TV :2, Radio :136)

다. 군비현황

- 태국군은 군사력 강화 목표를 최소한의 정규군을 유지하면서 최신 장비를 보유하는데 두고 있음.
- 태국군의 장비는 미군 장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후 중국 장비를 대량 구입하여 다양한 장비를 보유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장비의 교체 및 군장비의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라 군사력 증강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음.

라. 외국과의 군사협력

- 1976년 주태 미군 철수이후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가 약화되었으나, 마닐라 협

정(SEATO 협약:1954.9.서명) 및 Khoman-Rusk 공동성명 (1962.3)에 의거한 미국의 방위 약속이 유효하므로 유사 시에는 군사적 지원이 가능

- 현재 주태 미군사고문단(Joint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이 무기판매, 합동군사훈련 등의 연락,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안보위협 대처의 일환으로 82년부터 미.태 해군연합훈련인 COBRA GOLD훈련을 태국만 일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86년부터 육·해·공이 모두 참가하는 연합, 합동훈련으로 발전하였고 2004년부터 싱가포르, 필리핀, 몽골이 참가함.

Ⅴ 사회문화

가. 민족성 및 사회관습

1) 국왕에 대한 높은 존경심

-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정치에 초연하나 모든 국민이 국왕을 존경

2) 민족 및 국가에 대한 사랑과 헌신

- 오랜 세월동안 주변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을 지켜 온 민족으로서 국가와 자국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강함.
- 국민은 비교적 정직한 편이며 자유주의 사상하에 항상 유쾌하게 웃는 인상을 소지

3) 불교에 의한 가치관

- 불교의 자비심 및 관용성이 일상생활에 반영

4) 주요관습

- 두손을 이마에 올려 인사하는 태국식 인사방법(wai)는 태국에서 거의 국교화된 불교의식에서 도입된 것
- 결혼을 위하여 신랑측은 신부측 부모에게 'Sin Sod'라고 하는 일정 금액 지불 습관이 아직도 전래
- 불교의 영향으로 20세기 초반까지 성씨제도가 없었음(1913년 처음도입)
 - 현재도 사람을 부를 때 성보다는 이름을 부름
 - 일례로 Suchinda Kraprayoon 전 총리의 경우, Suchinda 총리 또는 Gen. Suchinda로 호칭

나. 종 교

1) 종교별 인구

- 불 교 : 5,736만명(91.8%)
- 회 교 : 298만명(4.8%)
- 기독교(천주교 포함) : 101만명(1.6%)
- 기 타 : Hindu, Sikh, Brahmin

2) 종교정책

-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나 실제적으로는 불교이외 종교의 교세 확장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정책을 펴고 있음.(기독교 선교사 수의 제한 등)

3) 태국 불교의 특징

- 태국불교는 소승불교로서 규율이 매우 엄격(대처승이 없고, 정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금식)
- 남자는 일생에 한번 승적을 보유(원칙적으로는 최소 3개월)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
- 태국은 3만여 곳의 사원과 18만명 이상의 승려가 있으며 사원·가정·사무실·상점까지도 불상을 모셔놓을 정도
- 불상은 신성한 존재이며 불상 모독은 금물. 일반 승려들도 경의와 숭앙을 받는 곳이 바로 태국임.
- 매일 아침 6시 30분전 승려들의 탁발로 국민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며 시민가정의 공양 모습을 항상 보게 됨

다. 언 론

1) 공보·언론 행정체제

- 공보행정 : 총리실 공보담당장관
 - Public Relations Department(PRD)
 - Mass Communications Organization of Thailand(MCOT)
- 언론행정 : 내무부장관(언론매체등록, 대외관계업무 등)

2) 주요 신문

- 영자지 : Bangkok Post (중립·보수, 약 6.5만), The Nation (민족주의성향·진보, 약 6만), Business Day (중립·경제지, 약 2.5만)
- 태국어지

- Matichon (약 40만부, 지식인 구독, 최고권위지)
- Khao Sori(대중지 약50만, 일반대중 구독)
- Thai Rath (대중지 약 100만부, 일반대중 구독)
- Daily News (대중지 약 80만부, 중산층 이하에서 구독)
- Naew Na, Manager Daily, Krungthep Turakij 등

○ 중국어지 : Sing Sian Yit Pao(성산일보, 보수, 약 5만)등 4개지

3) 통신사

○ Thai National News Agency

- MCOT가 운영하는 국영통신이나, 각 언론사의 활용도는 낮음

4) 방송 및 TV

○ 방송 : PRD산하 국영 Radio Thailand(전국 네트워크)외에 전국에 523개 방송국 및 지국(AM, FM)

○ TV : Channel 3, 5, 7, 9, 11 및 iTV

○ Cable TV는 UBC가 26개 채널로 뉴스·영화·오락·스포츠 등을 24시간 방영

5) 언론보도 정책

- 대부분의 TV는 정부·군에서 소유 또는 운영하며, 여론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순수한 의미의 민영 TV인 I-TV가 96.7월 설립됨.
- 신문·잡지등 기타 언론매체 운영 및 출판은 매우 자유로움.

라. 문화·예술

1) 문화예술 행정관청

- 국가문화위원회(Office of the National Culture Commission, 문화부산하)
 - 문화발전정책의 개념화, 국가문화정책의 집행, 민족문화특성의 진작
- 문화부 예술국(Fine Arts Department)
 - 문화유산의 복원·보존 및 보급

2) 문화정책 기조

- 문화유산 보존, 예술창작 진흥,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3) 방콕소재 주요 문화관계 국제기구

- UNESCO 아·태지역 본부
- SEAMEO(동남아 교육장관기구)

○ SPAFA(동남아 고고미술센터)

4) 타이어

○ 공용어는 Sino-Tibet어계에 속하는 타이어

- 1286년 수코타이 시대의 람캄행대왕이 고대 크메르 문자를 모방 제정
- 44개의 기본자음과 32개의 기본모음 및 4개의 성조 부호가 있으며, 10자의 타이 고유 숫자가 있음.

5) 태국 문화의 특징

- 태국문화의 기초는 인도 ·버마 ·크메르문화가 융합된 것이며 불교문화는 스리랑카로부터 도입됨.
- 태국 종족은 11세기경 중국 서남단에서 현재의 태국 땅으로 이민 왔다는 것이 일반정설이나, 말레이 반도에서 북상을 했다는 설과 선사시대이후 주변종족들이 계속 이주해 들어와 구성되었다는 설들이 대립하고 있어, 장래의 연구 과제가 되어있음.
- 태국의 각종 건축 ·사원 ·미술 ·무용 등은 불교문화에서 비롯된 것임.
- 불력 사용(서기 + 543) : AD 1995 = B.E 2538

6 교 육

가. 학제

- 초등학교(6년, 의무교육)
 - 취학연령 아동의 약 94% 입학
- 중등교육(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 중학 : 연령인구의 약 40% 진학, 고교 : 연령인구의 약 26% 진학
- 대학교육(4년)
 - 국립대학 중심체제로서 대학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고 학생부담은 극히 미미(사립대학 제외)
 - Chulalongkorn 대학, Thammasat 대학 등 국립대학 14개교, 국립개방 대학교 2개교
 - Srinakharinwirot 대학 등 사범대학 36개교

나. 교육행정

○ 교육부

다. 국제학교(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외국인학교)

○ 초(6년).중(3년).고교(3년)

- 학기 : 8월 신학기 시작, 익년도 6월 종료
- 입학절차

. 신청서 제출 : 여권사본, 성적증명서(최근 2년),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사항 증명용도)첨부

* 영문 번역본(국문원본에 첨부)으로 학교 제출(대사관 영사확인 필요)

. 면접 및 시험(영어, 수학)치른 후 학년 및 ESL 등급(초.중.고급반) 결정

- 태국에는 외국계 학교가 100여개 이상 있음

7 태국 국내정세('07.1.10)

1. 최근 정세

가. 지난해 9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서는 탁신 정부의 부패 및 남부 문제의 해결 실패 등이 표면적인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나, 전임 민선 탁신 정부가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지나치게 성장한 데 대한 국왕-세습관료-군 등 전통적 기득권 집단의 긴급 조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임.

나. 쿠데타 주도 세력은 국왕의 적극적 지원 등을 힘입어 향후 1년내 신헌법 제정 및 민선 정부 출범 등을 약속하면서 과도 정부 출범 초기 지지율 90% 내외에 달하는 인기를 얻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철저한 척결작업 부진 및 남부 사태의 악화 등에 기인, 지지율이 45%로 급락하는 문제를 노정함.

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발생한 연말연시 연쇄 폭발물 테러가 그 배후 세력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가운데, 주재국 내에서는 쿠데타 세력 내부의 분열설, 제2 쿠데타 발생 가능성 및 탁신 총리의 귀국 강행설 등이 난무하면서 최근 주재국 정세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2. 향후 정국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가. 과도정부의 개혁 작업

- 쿠데타 직후인 06.10 출범한 과도정부는 향후 1년 동안을 신헌법 제정 및 민선정부 출범 준비기간으로 산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또한, 쿠데타의 직접적 원인이 전임 탁신 정부의 광범위한 부패에 있었다면
서 이의 철저한 척결도 약속
- 과도정부 출범이후 3개월여가 지난 현재 과도 의회 및 헌법제정위원회 출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당초 약속되었던 시간표에 비해 다소 지체되었고,
계엄령의 완전한 해제 등 일부 조치는 상금 취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전임 탁신 정부 시절의 광범위한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는 거의 행해
진 것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여서, 쿠데타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
의 의구심이 높아지고 이는 상황.

나. 쿠데타 세력내 갈등

- 쿠데타 주동자인 손티 육군사령관은 실질적인 배후라고 할 수 있는 뽀렘 왕실
추밀원장과의 교감하에 수라윳 현 총리를 임명하였으나, 최근 정국 운영과 관
련하여 수라윳 총리와 뽀렘 추밀원장 및 손티 사령관간에 갈등이 조성되고 있
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심지어 왕실 추밀원 내부에서도 친뽀렘파와 반뽀렘파 사이에 알력이 있다는
소문도 제기중
- 이러한 소문은 손티 사령관이 수라윳 정부 전복을 위한 제2 쿠데타 추진 가능
설로까지 번지기도 하는 등 향후 주재국 정국 안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찰
이 필요한 분야임.
- 일부에서는 최근 연말연시를 기해 발생한 방콕 지역의 폭발물 테러가 이들
쿠데타 주도 세력 내부의 알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도 제기

다. 전임 정부 세력들의 움직임

- 탁신 전총리는 쿠데타로 실각한 후 영국 및 중국 등지에 머물고 있으나, 원할
경우 언제든지 귀국하여 예전의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는 시사를 계속 강력히
함으로써 쿠데타 세력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전임 집권 여당인 TRT당도 쿠데타 초기에는 당이 거의 와해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나, 최근 들어서는 차발리 전총리 등이 다시 적극 전면에 나서면서
노골적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등 쿠데타 세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라. 남부사태의 해결동향

- 남부 무슬림 지역 소요 사태의 실패는 전임 탁신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손
꼽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임 쿠데타 정부는 동 문제의 해결을 최대 국정과

제의 하나로 설정하는 등 중시하고 있음.

- 그러나,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동 지역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쿠데타 정권의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음.

마. 왕실내부의 변동 가능성

- 전임 탁신 세력들이 선거만 하면,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 쿠데타 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 과도 정부가 국왕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임.
- 그러나, 금년으로 80세가 되는 푸미폰 국왕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에 하나 가까운 시일내에 국왕의 유고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향후 왕위 승계와 관련한 왕자파와 공주파간 갈등은 물론,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여론의 저항을 한순간에 분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3. 향후 전망

- 가. 주재국 과도정부는 앞으로도 쿠데타 초기에 약속한 바 있는 신헌법 제정 및 민선 이양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가급적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계엄의 조절 등을 통해 정국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할 것이나,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전임 정부 시절 부패에 대한 철저한 척결은 탁신 전 총리의 귀국 압력 등으로 그다지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여론의 과도정부에 대한 신임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 나. 왕실 추밀원과 군 및 과도 정부 지도부간 갈등이 현실적으로 표면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 지나, 전임 탁신 정부 세력들의 저항 및 남부사태의 악화는 자칫 동 내부 갈등과 맞물려 주재국 정국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다. 특히 상당한 우발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만에 하나 국왕의 신변에 유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신적 지주를 잃은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에 더하여 향후 왕위 계승 문제와 관련한 권력 투쟁까지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커 향후 주재국 정세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한 관찰이 요구됨.

Ⅲ. 주요시설방문현황

■ 대만 / 쓰레기 처리장 견학 : '07. 2. 6(화) 09:10



■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현황 설명 및 대화

- 면적 : 3.5ha
- 처리용량 : 일일700 tons
- 직원 : 60여명
- 처리과정 : 수거 - 소각 - 열회수(전기공급)
-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 오수 처리된 물로 식물원, 물고기 등을 키워 시민들로부터 친환경시설로서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

■ 대만 / 신점시 상수원 관리국 (Taipei Feitsui Reservoir) 방문
: '07. 2. 6(화) 11:00



○ 상수원 기본현황

- 총저장량 : 406,000,000 m³
- 실제저장용량 : 327,000,000 m³
- 유역면적 : 303km²
- 저장면적 : 10.24km²

○ 비취댐 현황(타이베이시에 식수를 공급)

- 유형 : 콘크리트 아치댐
- 높이 : 122.5M
- 길이 : 510M

■ 대만 / 신점시청 및 신점시의의회 방문 : '07. 2. 6(화) 14:30



신점시청·시의회 입구



신점시의회 본회의장
(전자투표가 가능토록 전자게시판설치)



신점시장과의 대화 및 기념품 전달후



- 총인구수 : 285,186명(남 : 141,972명, 여 : 143,214명)
- 시민대표인원 : 25명
 - 主席 1명, 副主席 2명, 代表 23명
- 임기 : 4년
- 선거구 : 5개선거구

■ 대만 / 양노원 방문 : '07. 2. 6(화) 16:00



시설대표의 안내 및 기념품 전달, 기념촬영
로원의 위치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양

- 운영주체 : 내무부(국영)
- 면 적 : 9,000여평
- 수용인원 : 270여명
- 직 원 : 60여명, 자원봉사자 160여명

■ 대만 / 팔리 오수처리장 (Pa Li Sewage Treatment Plant) 방문
: '07. 2. 7 [수]



- 모형도 앞에서 처리과정 등을 설명



- PPT 시청 및 설명.질의



처리과정도

- 위치 : 타이베이시 팔리
- 설계용량

- 면적 : 43.3ha

	제1기	제2기	제3기
설계평균(㎥/일)	1,320,000	1,980,000	3,300,000
최대(㎥/일)	1,530,000	2,163,000	3,542,000

■ 대만 / 문화시설 시찰

○ 국립고궁박물관 (타이베이시)



본 박물관의 소장품은 중국 미술품이 주종을 이루며, 많은 명품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궁박물관은 “중화(中華) 문화의 보고”라고 불린다.

유물을 대만으로 옮긴 이후 잠시 타이중(台中) 우펑(霧峰) 베이꼬우(北溝)에 1965년까지 보존했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중앙박물관 주비처가 통합되면서 타이베이 스린(士林) 와이쌍시(外雙溪)에 위치한 신관이 개방되어 전시되었다. 두 기관이 타이완으로 옮겨온 유물은 원 고궁박물관 소장품인 기물 46,100점, 서화 5,526점, 도서문헌 545,797점과, 원 중앙박물관 소장품인 기물 11,047점, 서화 477점, 도서문헌 38점으로 총 608,985점에 달하여 그 수량만으로도 이는 가장 방대한 규모의 중화민족 문화자산이라 할 수 있다.

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는 위에서 언급한 두 기관의 유물 이외에도 그후 다른 기관에서 이관되어 온 것, 외부로부터 기증된 것과 매입한 것 등이 있다. 특히 기증받은 것과 사들인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박물관 유물이 타이완으로 옮겨지기 이전, 베이징 고궁과 중앙박물관에서는 이미 소장품을 늘려왔다. 1934년, 고궁박물관은 간수성(甘肅) 덩시현(定西縣)

청고우역(稱鉤驛)에서 출토한 전한과 후한시대를 잇는 신(新)나라 왕망(王莽) 시대의 도량형인 권과 형 2점을 사들였고,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궈바오창(郭葆昌) 가족이 기증한 도자기, 독일인 Werner Jannings가 기증한 은과 주나라 시대의 청동기를 소장하게 되었다. 중앙박물관은 류씨선재(劉氏善齋), 우씨쌍검이(于氏雙劍移), 용씨송재(容氏頌齋)의 청동기 등을 각각 매입하였는데, 이 모두는 세계적으로도 이름 난 중요한 보물들에 속한다.

타이완에서 다시 박물관을 개관한 이후, 소장품을 보충하는 작업 또한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 1969년에 제정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수집방법”이 실시되면서 소장품을 늘리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민간에 대해 공적 및 사적인 기증을 유도하고, 유물 구입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로부터 기증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 소장품 증대 목적을 달성하여 그 성과는 매우 컸다. 1967년부터 2004년 11월 사이, 증가한 기물, 서화, 도서문헌 등 유물 가운데,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것이 1,651점, 기증 받은 것이 31,995점, 매입한 것이 12,525점, 총 46,171점이 늘어나 소장품의 다양성과 전시 콘텐츠의 다양성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이렇게 수집한 소장품에는 청나라 공왕부(恭王府)의 자단가구(紫檀家具: 자단목으로 만들어진 최고급 가구), 북송시대의 진박서련(陳搏書聯), 북송 시대의 소식(蘇軾)의 황주한식시권(黃州寒食詩卷), 당나라의 춘뢰고금(春雷古琴), 춘추시대의 자범편종(子犯編鐘), 육조시대의 북위 이후 역대 금동불상, 당나라 현종(玄宗)시대 선지지옥책(禪地祇玉冊), 남송시대 주희(朱熹)의 역계사권(易繫辭卷), 고대 북방 벽화 수행보살, 근대 장따첸 선생의 여산도권(廬山圖卷), 이외에 다량의 선사시대의 옥기, 도기, 은나라와 주나라시대의 청동기 그리고 청대 가경(嘉慶)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유명 서예 및 화가의 서화 작품 등은 모두 원 고궁박물관 소장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되었다.

○ 용산사



타이페이에는 수많은 사원들이 있는데 이 중 용산사는 가장 오래되고 전형적인 타이완의 사원이다. 멋진 건축양식 자체만으로도 둘러볼 가치가 있으며 돌기둥에는 조화롭게 조각된 용 뒤에 역사적 인물들의 춤추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 곳에서는 매일 신도들이 피워놓은 진한 향냄새와 더불어 대만인의 종교 생활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 원래는 1740년에 건립된 것으로 자연 또는 인공적 재해를 입으면서 몇 차례 파괴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57년에 지어진 것으로 매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유명한 뱀골목이 두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 충렬사



대만 국민혁명과 대일 전쟁 중에 전사한 애국지사 및 장병들의 영령을 모시기 위하여 건립된 성역이다. 1969년 5만여 헥타아르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베이징의 태화전의 형태를 빌어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전사한 군인들의 사진, 동상, 훈장 등을 모아 놓았으나 내부는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총렬사의 볼거리로는 매시간 벌어지는 위병 교대식을 손꼽을 수 있다. 육/해/공군 의장대들이 3개월마다 주기적인 교대 근무를 하는데, 위병들은 정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본전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되는 거리를 행진하여 교대식을 벌인다. 위병들의 절도있는 행동과 의식을 통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태국 / 파타야시청·의회 방문 : '07. 2. 9(금) 09:00



《파타야 부시장과의 대화 및 시청 입구에서의 기념촬영》

○ 주요 대화내용

- 태국에 한국인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글로 표현된 안내책자 있는지? 현재는 영어만 있지만 앞으로 고려해 보겠음.
- 현재 부위원장과 부시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가 힘들지 않은지 ? 저를 수행하는 4명의 직원들이 있어 힘들지 않음.
- 교민안전을 당부드리고, 파타야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 또는 우리나라에 시군이 있는지 ? 교민 안전에 힘쓰겠으며, 중국과는 교류가 맺어져

있고, 한국에는 교류 시군이 없음.

- 의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 상원의원이 5명, 하원의원이 24명임.

※ 현재 일본과 한국의 방문비율이 50:50정도 되는데 1일 20불정도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태국을 자주 방문하여 즐겨주시기 바람.

○ 휴양지의 모든 것을 갖춘 '파타야'

방콕에서 약 147km, 2시간 반정도 차로 달리는 거리에 있는 파타야는 동해안 최고의 휴양지로, 매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휴양지이다.

"아시아 휴양지의 여왕(Queen of Asia's Resorts)"이라는 별명은 휴양지로서 어느 계절이나 그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는 태국으로 볼 때도 쉽게 얻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파타야는 '휴양지'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모든 것을 실로 다 갖추고 있다. 푸른 언덕 너머로 나무가

둘러싸고 있고, 섬이 드문드문 보이는 해안선이 있는 파타야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파타야는 도시의 모든 것에서 벗어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생동감에 넘치는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춰진 도시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 또한 남과 북으로 이어진 해변을 보면서, 혹은 해안선을 벗어난 섬에 가서 보트를 타면서,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년 전만 해도 파타야는 작고 한산한 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으며 그 때부터 파타야는 점차 휴양의 명소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달빛으로 바다의 정취가 흠뻑 드리워진 해변을 산책하거나, 열광적인 분위기의

파타야 남부의 길고 좁다란 길을 따라 걸거나,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오락 시

설, 나이트 클럽, 카바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나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그날 아침에 잡아들인 싱싱한 해산물을 곧바로 즐긴다든지, 혹은 다양한 식단을 갖추고 있는 국제수준의 레스토랑에서 촛불을 밝힌 가운데 식사를 할 수도 있다. 이곳에는 옥외의 고급 바나 저렴한 가격으로도 즐길 수 있는 바가 있고,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양궁장, 사격장, 난을 키우는 농장도 있으며, 그 밖에 테니스, 승마장 등 실로 모든 여가 활동을 이 곳에서 즐길 수 있다.



《파타야시의 중앙통제시스템》

- 파타야 시청내(1층 민원실 맞은편)의 중앙통제시스템으로 시청내 직원 및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으로 본 시스템에 의하여 도로교통, 소방, 사고 등을 이곳에서 접수하여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



○ 파타야 시청 민원실 입구 및 내부

- 산뜻하고 정겹게 꾸며진 민원실 입구, 내부는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민원은 통합운영(번호표에 의하여 대기), 또한 민원직원만 창구에 배치. 그 외 직원은 칸막이 뒤쪽에 근무, 전체적인 사무실 분위가 정리정돈되어 있고 통일감이 있음.

■ 태국 / 라용시에 있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체 방문
(SHI-ASIA COMPANY LIMITED) : '07. 2. 9(금) 13:20



《회의실에서 ppt로 브리핑을 받는 모습》



《공사현장 견학》

○ 회사개요

- 1994년 설립(태국 라용)
 - ※ 라용시는 태국의 화학공단 밀집지역
- 주요사업 : 원유 및 초저온 액화가스 저장 탱크 및 특수설비
- 1995년 : 사우디 아라비아로 첫 수출개시
- 1997년 : 원구형 탱크 생산을 위한 특수설비 설치완료(ISO 9001 획득)
- 1999년 : 자본금 증자 5,240,000\$
- 2001년 : 회사명을 "SHI-ASIA" 로 변경
- 2002년 : 자본금 증자 5,500,000\$
- 2006년 : 자본금 증자 7,900,000\$

○ 임직원현황 : 444명

○ 주주현황 : 한국80%, 태국 20%

○ 주요설비현황

- | | |
|--|--------------------------|
| - Press Machine 2(1,000 Ton & 1,500 Ton) | |
| - Overhead/Gantry Crane 9 | - Roller Bender 2 |
| - Flame Planer Gas Cutting M/C | - NC Gas Cutting M/C |
| - Angle Bender | - Auto Girth Welding M/C |

- PWHT Furnace

- Auto Blasting Equipment

○ 향후 시장전망

- 에너지 관련 :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저장의 필요성 확대와 LNG를 포함한 신규 에너지의 저장 및 활용, 그리고 Bio Diesel과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 확대로 더 많은 설비수요가 전망됨. 또한 도시가스 도입으로 인한 대규모 토목사업이 병행될 것임.
- 플랜트 관련 : 현재 SHI-ASIA 고객사들이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업계가 팽창함에 따라 가동률 포화 상태로 인한 신규 설비 투자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음.

■ 태국 / 재활병원 및 시립양노원 방문 : '07. 2. 10 (토)



○ 재활병원

- 여자 350명 수용(거동 200여명, 150여명은 노동력 불가)
- 공무원 16명, 자원봉사 28명



○ 시립양노원

- 68세 이상 노인만 입소 가능
- 빨래, 목욕, 이발 등 자원봉사자의 봉사에 의해 이루어짐.

■ 태국 / 문화시설 시찰

○ 농눅빌리지(Nong Nooch Village)



- 농눅 빌리지(Nong Nooch Villiage)는 왓 야니상와라람 근처 500에이커의 대지에 오락과 휴식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코코넛과 망고 농장이 있고, 난 재배지와 식물원이 있다. (입장료는 성인 20바트, 어린이 10바트) 매일 민속 공연과 코끼리 쇼가 열리고 있는데 공연은 매일 오전 10시 15분과 오후 3시, 3시 45분에 열리며 쇼관람 입장료는 200바트이다. 호텔이나 태국식 고가에서 숙박할 수 있다.

○ 미니 사이암(Mini Siam)



- 태국은 수세기 동안 사이암(Siam)으로 세기의 사람들에게 불리어 졌다. Sukhothai, Ayutthaya와 Rattanakosin 왕조를 거치는 700년의 역사를 거스르며 형성된 각종 예술, 문화가 동서남북 각 지역으로 흩어져 풍부한 고대 예술품 및 문화유산이 이곳 미니시암을 통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태국 최초의 소인국 미니시암에서 에메랄드 사원, 새벽사원, 왕국 등의 조각, 건축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 문화유산과 역사가 1:25로 축소된 소형 모델로 제작되어 전시하고 있다.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성 바실리성당, 콜로세움 등의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미니시암을 모두 둘러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총 2~3시간 정도이며 개장은 오전 7시에 시작하여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 왕궁(Grand Palace)과 에메랄드 사원



왕궁 가는 길



사원안 소망을 비는 태국 사람들



- 왕궁(Grand Palace)

1782년 방콕 왕조의 라마 1세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 강의 동쪽 기슭 위치하

고 있다. 높이 둘러싸인 성벽 안에는 역대 왕들이 세운 웅장하고 화려 한 건물들이 모여있다. 내부는 왕실 전용의 사원인 왓 프라께오와 르네상스 양식과 태국 전통양식을 접목시킨 차크리 궁전 그리고 역대 왕들의 장례식 과 대관식이 행해지는 두시트마하 프라사드 궁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크리 궁전은 라마 5세의 옥좌가 있는데 1876년 차크리 왕조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1층이 전시실로 왕실에서 사용하던 물품이 전시되어 있다. 투시트마하 프라사드 궁전은 1789년 라마 1세가 세운 것으로 왕궁 내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태국 전통양식의 궁이다.

현재 이 왕궁에는 실제로 왕이 살고 있지는 않고 국왕이 외국대사를 접견하거나 국빈을 맞이하는 공식행사시에만 사용되고 있다. 왕궁에는 축제일을 제외하고 8시부터 11시, 1시부터 4시에 입장이 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입장이 불가능하다. 이곳에 들어갈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복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반바지 입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돈을 받고 옷을 빌려주는 곳이 입구 옆에 준비되어 있다.

- 왓 프라께오(Wat Phra Keo : 에메랄드 사원)

불교의 나라인 태국의 사원은 짙은 남빛 오렌지 빛깔의 3층 지붕과 벽에 수놓아진 화려한 모자이크, 그리고 번쩍이는 황금불탑 등 한국의 불교사원과는 매우 다르다. 특히 왓 프라께오는 태국에서 가장 격조 높은 사원이며 태국 최고의 왕궁 수호사원으로 이러한 차이점을 몸으로 느끼게 한다.

여기 서 왓(Wat)이라는 말 절을 뜻하는 것이다. 에메랄드 사원이라고도 불리는 사원은 왕궁과 같은 부지안에 있는 왕실 예불당으로 승려가 관장하지 않고 왕이 직접 관리한다. 본존은 높이 75cm, 폭 45cm의 비취 불상인데 에메

랄드처럼 빛난다고 해서 에메랄드 사원이라는 속칭이 생겼다. 이 본존은 북인도에서 스리랑카를 거쳐 태국에 들어왔으며 아유타야, 치앙라이, 치앙마이, 톤부리 등지를 거쳐 왓 프라케오에 안치되었다.

이 본존은 계절에 따라 순금으로 된 세 벌의 의상을 왕실의 점성술사가 지정한 에 엄숙한 의식과 함께 갈아입힌다. 국왕이 직접 의상을 갈아입히는 데 의식이 거행될 때에는 일반인과 관광객의 출입이 금지된다. 현관에 올라서게 되면 세 개의 문이 진주조개로 장식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는 6마리의 청동 사자상을 볼 수 있으며 건물 아래 부분에서는 뱀을 손에 쥐고 있는 금빛 가루다 상을 볼 수 있다.

○ 수상가옥, 재래시장 (방콕) 견학



- 차오프라야 강과 연결된 운하인 '크룽'에서 오전 5시쯤부터 9시 사이에 열리는 재래시장이다. 수상시장 주변에는 수상가옥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조그만 나무배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관광객들에게 과일이나 수공예품, 기념품 등을 팔고 있다. 왕궁을 본 후 수상가옥을 보기 위해 배를 타러 이동했다. 여기 물은 지하수이긴 한데 진흙이라서 물리 더러워 보인다고 했다. 정말 육안으로 보기에는 엄청 더러워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씻는데 사용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라고 한다.

IV. 맺 음 말

- 이번 대만, 태국 2개국의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 그저 사람 사는 곳은 결국 다 같다는 평범한 진리만을 맘속에 품은 채 낯선 땅을 밟았다. 사전 지식이라고는 일부 사람들이 다녀 온 피상적인 여행소감과 인터넷에 떠 있는 일부 지식들..... 대만, 태국을 가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과 한층 더 깊은 이해가 불가능해서 아쉬웠으나, 너무나도 새롭고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와 이 같은 생각은 어느새 부셔져 버렸다. 사실, 대만 같은 경우 우리의 방문도시였던 신점시의 경우 알려진 자료가 빈약하고 통로가 없어 힘들었다.
- 대륙 중국을 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서는 대만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중국이 보이는 것 같다. 중국대륙과 대만의 관계는 양안관계라 불리며 '양안관계'라는 어휘는 근대이후, 특히 내전이 종결된 1949년 이후 패전한 국민당 정권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동하면서 생성된 정치적 성격을 지닌 어휘다. 양안관계는 현재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성격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 관계발전으로 구체화되어 왔으며, 21세기 국제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현안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대만의 독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대륙과 독립, 현재 상태의 유지와 통합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대만이다. 대만국민들은 일단 소탈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치장, 사치에 비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이미지 치장은 거의 없는 듯 하다. 정신적인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성이 워낙 그러한 것인지 약간의 의구심까지 든다.
- 대만은 겨울이 없다. 그래서 당연 눈도 볼 수 없는 나라이다. 머무는 여

행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은 너무 따뜻했지만, 호텔에서는 춥고 습기에 여행의 피로가 누적되었다. 대만에 습기제로 상품 판로를 뚫어봐야 것 같다.

- 태국에 오니 공기부터 틀리다는 느낌이 들었다. 날씨는 더웠지만 가볍고 경쾌했다. 파타야시청을 방문 직원들 상의가 다 노란색이다. 부시장과 부의장을 겸임하는 부시장도 노란티를 입고 면담 자리에 나왔다. 시 단체복이라도 입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와의 정서와는 정말 맞지 않는 일이지만 국왕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노란색 티를 입는다고 한다. 그래서 태국은 국왕모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를 감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한다.(살인보다도 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관광도시의 공무원답게 정열적으로 관광국가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적극적으로 태국을 찾아주기를 당부하는 공무원의 모습에서 작은 해변마을이었던 파타야가 클 수 있었던 저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파타야시청의 시스템중 하나는 민원실이 통합민원으로 이루어져 번호표에 의하여 처리하고, 민원실 내부가 거부감 없이 포근하고 정겨워 보인다. 또한 도로, 교통 등을 중앙시스템에 의하여 일괄 처리되고 있어 빠른 행정처리의 모범이 되고 있다.
-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지만 관광국가로서의 상품개발,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인 것 같다. 태국은 외국인들에게 볼거리,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느낌으로 관광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다.